

雲門

불기 2561년

봄호

통권 제 140호

雲門寺 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 많은 인연 공덕으로 출가하여 도반들과 화엄경을 보며 사경하고 있음에 감사해합니다. 우리 함께! 일상의 정진이 사무쳐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원인이 되기를! / 대교과 혜도
- ▣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처럼 공부하고 기도하고 읊력하며 호탕하게 이 봄을 지내봅시다. / 대교과 도우
- ▣ 운문사에서 맞는 네 번째 봄! 제겐 최고의 사건입니다. 고맙습니다. / 대교과 청언
- ▣ 1000년 괴목의 옹이가 목룡木龍처럼 굽이치는 금당! 금당에서의 1년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사교과 도원下
- ▣ 엄마 반 맑은 우리 반 에너지원들 후원에서의 울력 모두 열심이네요. 끝까지 무탈하게 잘 회향합시다. / 사교과 윤덕
- ▣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치문 금방 지나갑니다. 사집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 사집과 석인
- ▣ 겨우내 웅크린 어깨 활짝 펴고, 하늘과 같은 높고 넓은 마음 밟 일굴 겁니다. / 사집과 선주
- ▣ 긴장했던 날들이 설레는 날들로 가득 차는 지금! / 사집과 진오下
- ▣ 마중물처럼 부처님 향한 마음 일심으로 정례 올립니다. / 사미니과 영산
- ▣ 불이문을 나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장엄한 들산을 보면서 저 산과 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사미니과 도육

雲門

목차

- | | |
|--|--|
| <p></p> <p></p> <p></p> | <p>02 호가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치다</p> <p>04 죽림현 시작하는 마음 평성</p> <p>06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또다시 출가를 생각하며 일진</p> <p>08 교수논단 義相『華嚴—乘法界圖』題名 해설 ③ 영역</p> <p>13 想 물 날 유연</p> <p>14 학인논단 용성 조사의 『歸源正宗』, 그 현대적 해석에 관하여 ③ 원행</p> <p>20 자유기고 기대 없이 수행하기! 혜정</p> <p>24 특별기고 브로드만 뇌 지도 박문호</p> <p>28 선방에서 온 편지 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種種法滅 편집부</p> <p>32 방부소감 후회 없는 선택의 자리 정현
오래 기다려온 물날 송만</p> <p>34 수행의 두레박 하나 모두 "회향"이라는 향 한 자루 살라 법계 환히 밝하시길 능가</p> <p>36 수행의 두레박 둘 행복하지 않은 날들의 선물 혜중</p> <p>38 운문, 운문인 처음처럼, 환한 웃음 가득히 편집부</p> <p>40 차례법문 1 꺾어진 고목에서 나를 만나리… 도안</p> <p>42 차례법문 2 보살의 마음 석인</p> <p>44 노스님 탐방 함월사 우룡 큰스님! 시우</p> <p>46 이 한 권의 책 임종 때 중요한 세 가지 일 월인</p> <p>48 특집, 대만성지순례 우리들의 행복 찾기, 대만 순례기 동호</p> <p>51 풍경소리 하하하! 민재</p> <p>52 운문논평 바로 그대가 선지식 편집부</p> <p>54 운문소식</p> <p>55 등불 인과교철 편집부</p> |
|--|--|

시작하는 마음

명성 / 윤문사승가대학원장



2017 법계장학금 수여식

정유년에 들려오는 세상소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건이 계기가 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결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커다란 사건의 발단과 전개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緣起의 이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기란 일반적으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멀하므로 저것이 멀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상事象은 항상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적 불변적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공사상空思想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연기의 사상입니다. 일체의 존재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상호 인因이 되고 연緣이 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생 스님들과 함께 이 연기법에 입각하여 수행자로서의 첫 단추를 어떻게 채워나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거의 인因을 알고자 한다면 현재의 과果를 보라. 미래의 과果를 알고자 한다면 현재의 인因을 보라”는 말이 많은 경전 가운데 설해져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 사상은 숙명론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바른 행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불교의 업사상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 항상 하고 발전하는 자유의지를 인정하며 부단한 정진을 독려합니다. 따라서 일체의 존재가 시시각각으로 생멸 변화하면서도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현재에서 미래로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생사윤회를 계속하며 변화해가는것은 바로 그 누구의 힘도 아닌 자신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깨달음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해 운문 도량에 모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중생활을 해야 할까요? 연기법을 여실히 안다고 한다면 마음가짐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모두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대중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행동, 나의 언행이 모두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에 그의 행동이 곧 내 행동이요, 그의 말씨가 곧 나의 말씨입니다.

베이징의 나비 한 마리가 펼친 한 번의 날갯짓이 중폭되어 뉴욕에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다는 나비 효과는 연기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슬픔과 기쁨의 바람이 어떤 식으로든 허공을 타고 흘러서 나에게로 온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물론 대중생활이 순탄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고집과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언행은 곧 나의 언행임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볼 수 있다면, 용광로와 같은 청풍료에서 살아 있는 수행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의 거울이요 내 행동이 그의 거울이 되도록 정진해 나간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수행자로 변화해 가는 스스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겨울이 혹독할수록 봄은 더욱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어려움을 견뎌낸다면 텁스럽고 향기 있는 꽃을 피우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맞이합시다. ♣

또다시 출가를 생각하며

일진 / 윤문사승가대학장



선래비구善來比丘는 부처님이 출가자들을 받아들이는 전형적인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이 한마디 말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 특별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잘 왔구나. 올바른 선택을 하였구나.

자유, 평화, 자신의 가치실현의 길로 참 잘 왔구나.

그렇게 칭찬하시고 환영하신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새삼스럽게 나의 출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부처님 최초의 이 한마디 말씀이 지금 여기 청풍료에 차서 대로 질서 있게 정좌한 우리 대중 모두에게 말씀하신 듯 깊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잘 왔구나.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말입니다.

지극히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한때 익숙한 윤문사 대중살이에서 벗어나 몇 년간 혼자 자취를 하며 살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어려웠던 일로 기억에 남은 교훈 하나가 제 때에 자고 제 때에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어긋날 때 모든 생활이 어그러지고 어려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도반과 어울려 생활하고 대중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고 수월한 일인지 쉽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 요·이불 따뜻이 챙겨 강원에 보내시던 온사스님의 간단한 한 말씀 ‘대중 방석을 여의지 않고 평생을 살면 반은 성불이다.’라는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깊이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수행이 해체되면 불교의 힘이, 불법이 쇠약해진다는 원리가 쉽게 이해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함께 수행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매우 상식적이시고 교양 있는 스승님이셨습니다. 출가수행자의 삶이라 해서 보편적 삶의 가치와 세상의 상식을 면제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일상생활을 떠나 따로이 향해 나갈 바가 있다면 파도를 버리고 물을 구하는 것이요, 그 끈을 떠나서 금을 구하는 것이다. 구할수록 더욱 멀어질 뿐이다.

바다로부터 그 바닷물의 일렁임으로 만들 어지는 파도를 오려낼 수 없듯이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 수행은 온전히 지금, 순수 여기에서의 현실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많이 들어왔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로서 늘 깨달음을 강조하다보니 일상의 삶과 교양을 놓치고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가치하고 무의미 하게 보이는 일들에서조차도 그것이 나의 일상의 파도로 밀려온다면 묵묵히 집중하고 세밀한 곳까지 정성을 들이는 것이 일상의 삶과 상식을 무시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때로는 알 수 없는 권태로운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날의 감동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에서도 물질, 상대적 소유에 의미를 둔다면 자신이 초라해지고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출가수행이란 무엇일까요?

소유와 소비를 최소화하고 가볍고 자유로움으로 세상에 바른 안목을 열어주는 명품수행이어야 합니다.

나만의 다른 길, 다른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향하여 아름답게 회향할 때 진정한 나의 삶을 끊임없이 맑고 향기롭게 가꾸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풍진 세상에도 뜻을 같이한 젊은 수행자로서 완전공동체 생활을 원칙으로 하는 화합대중입니다. 화엄경에서 청량 스님은 위쟁違靜의 허물이 다했을 것을 ‘승보’라 하였습니다. 신, 구, 의가 서로 화합하여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이 수순하는 것이 대중생활이라면 정해진 청규를 소중히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서 어긋남이 없을 때 대중은 평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대중 속에서 늘 수순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은자隱者가 되어 온전히 홀로 살 수 있는 행복한 수행자, 그는 순간순간 외로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각고의 노력 없이 대중 속에서 편안하며 행복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간절히 발원해야 합니다.

타성에 젖지 않기를, 늘 새롭게 피어나는 꽃이기를, 그래서 세상에 향기롭게 회향하기를….

義相『華嚴一乘法界圖』

題名 해설 3

- 『法界圖記叢譜錄』을 참고하여 -

영덕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목 차

- I. 시작하는 말
- II. 『華嚴一乘法界圖』와 『法界圖記叢譜錄』
 - 1. 『一乘法界圖』의 著者 問題
 - 2. 『法界圖記叢譜錄』의 가치
- III. 도표로 그려본 「華嚴一乘法界圖」 題名 해설
- IV. 맺는 말

III. 도표로 그려본 「華嚴一乘法界圖」 題名 해설

과 목	문답과 記文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印文의 양상 • 문자의 양상 六相으로 보는 一乘과 三乘(不卽不離 不一不異) 	<p>문 ; 무슨 까닭으로 印文이 오직 한길(一道)로 되어 있는가? 답 ; 여래의 一音을 표상하는 것으로 선교방편을 나타낸다.</p> <p>문 ; 또 어찌하여 많은(54각) 굴곡이 있는가? 답 ; 중생의 根機와 意欲에 三乘의 차별이 있어 같지 않으므로.</p> <p>문 ; 무슨 까닭으로 四面과 四角이 있는가? 답 ; 사법법과 사무량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p> <p>문 ; 무슨 까닭에 첫 法자와 끝 佛자가 가운데에 와 있는가? 답 ; 因果의 두 位가 法性家¹⁰내의 진실한 덕용임을 나타내며, 그 性이 중도이기 때문에 문자상을 그와 같이 배치하였다.</p> <p>문 ; 위에서 말하기를 인과 과가 같지 않다고 하고, 또 一家, 즉 법성가의 實德인 性이 중도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는 까닭을 잘 모르겠다. 그 뜻이 무엇인가? 답 ; 이 뜻은 실로 이해하기 어렵다. 비록 그렇지만 天親論主의 六相의 방편을 의지하여 그 뜻을 풀어해보면, 이치를 따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六相으로써 法界圖印相을 밝히고, 일승과 삼승이 서로 主와 伴이 되어 법의 分체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겠다. 소위 육상이란 總相 · 別相 · 同相 · 異相 · 成相 · 壞相을 말한다.</p>

	<p><u>總相은</u> 根本이 되는 印이요, 别相은 그 밖의 다른 굴곡들이니, 각각 印에 의지해서 근본인을 원만케 하기 때문이다. 同相은 굴곡마다 다르지만 하나의 큰 동일한 印을 이루기 때문에 동상이다. 異相은 다양한 증가의 相이니, 이를테면 첫 번째, 두 번째 등 굴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成相은 하나의 印이 이루어진 관절이라면, 壊相은 세밀하게 해체하여 자분의 작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번거롭게 돌고 구부러지지만 그 자체마다 본래 개별적인 자기의 역용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모든 緣生法이 육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총상이란 그 뜻이 圓教에 해당하고, 별상이란 그 뜻이 삼승교에 해당한다. 총상·별상·성상·파상 등이 딱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분리되지 않으며(不即不離), 동일하지 않으면서도 또 서로 다르지 않은 상태(不一不異), 항상 중도에 있듯이 일승과 삼승도 서로 서로 主와 伴이 되어주며 상생하는 연관성이 있다. 일치하지도, 서로 분리되지도 않으며, 동일하지도, 相異하지도 않으면서 중생들을 이익 되게 하지만 오직 中道에서 主와 伴의 관계성으로 법을 드러냄이 이와 같다. 一乘別數와 三乘別數의 의미도 이에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p>
•『十地經』 悟證 九門	<p>▲ 『十地經』에서 총상(根本)에 의해 불가사의한 悟證에 들어가는데 아홉 가지(九入)가 있다고 설명한다.</p> <p>첫째, 見聞의 지혜 가운데 일체의 善根을 섭수한다.</p> <p>둘째, 일체불법을 잘 思惟 분별하여 택법하는 지혜의 방법론.</p> <p>셋째, 六相을 통하여 존재양상을 구체적으로 인식한다.</p> <p>넷째, 여러 존재를 잘 확정·해설하여 교화에 들게 한다.</p> <p>다섯째, 분별이 없는 평등한 지혜는 순수하여 불순물(染汚)이 섞이지 않으므로 悟證에 들어간다.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자신의 불법을 완성하는 일로 利他를 自利라고도 부른다.</p> <p>여섯째, 수도하는 기간 중 일체번뇌의 원인인 障礙에서 節制를 통해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 일곱째, 출세간법에 나아가는 선근이 청정하기 때문이다. 선근이 능히 세간을 벗어나는 수행덕목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여덟째, 十地 중, 일체여래의 비밀스러운 지혜에 들어가 불가사의한 경지를 얻기 때문이다.</p> <p>아홉째, 一切智를 갖춘 자의 지혜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부처의 완전함에 들어가게 된다. 경에서 이르기를 ‘불법을 깊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인가?’ 답하기를 ‘일체의 존재는 오직 부처의 일 바요. 나의 경계가 아니니 만약 이와 같다면 이를 이름하여 불법을 깊이 믿는 것이라 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구절로 볼 수 있다.</p>
•深信佛法-證智 所知非餘境	<p>▲ 問；六相은 무슨 뜻을 나타내기 위함인가?</p> <p>答；육상에 있어 연기무분별의 원리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7처 9회 39품이 十地의 근본에 모두 포함된다. 과거·현재·미래의 구세가 다름 아닌 한 순간이며, 일체가 다름 아닌 하나인 까닭이다. 이와 같은 이치로 보면 과거 다라니법에 있어서 서로 主와 伴의 관계를 형성하며 하나의 존재에 일체의 존재가 남김없이 포함되는 것도 그와 같아서, 만약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성립할 수 없는 것과 같다.</p>
•六相緣起無分別 初發心時便正覺 九世十世互相即 無量遭劫即一念 一即一切多即一 以陀羅尼無珍寶	

<p>• 義湘의 證分과 教分의 中道 무분별</p>	<p>義湘 云 ‘만약 情을 기준하여 말한다면, 證分과 教分의 兩法이 항상 두 끝에 있고, 만약 이치를 기준해서 말한다면 證分과 教分의 兩法이 예부터 中道이며 하나이어서 무분별이다.’라고 하니 이것을 말한 것인가. ‘證分의 법은 言相으로 미칠 수 없고, 言教의 법은 事 가운데 있으므로, 證과 教의 兩法이 항상 양극단이므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만약 情으로 줄여 말한다면 종·교 양법이 항상 二邊에 있다. 그러나 理의 관점에서 본다면 종·교 양법은 옛날부터 그대로 중도이어서 하나의 동일한 무분별 자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 사물에 대하여 주관적 망념을 가지고 대상에 집착하는 遍計所執은 相이 없고, 依他起性은 生이 없고, 圓成實性은 性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自性이 항상 중도에 있기 때문이다.</p>
<p>4. 跋文¹¹⁾</p>	<p>“一乘法界圖合詩一印은 華嚴經 및 十地論을 의지하여 圓教宗要를 나타낸 것으로, 總章 元年 7월 15일에 記錄하다.”</p> <p>▲ 問 ; 무슨 까닭으로 集者의 名字가 보이지 않는가? 答 ; 緣生諸法은 主者가 없기 때문이다.</p> <p>▲ 問 ; 어찌하여 연월일은 있는가? 答 ; 一切諸法은 緣을 의지하여 生함을 보이기 때문이다.</p>
<p>〈玉4〉 義湘의 法性偈科門</p>	<p>〈玉4〉 義相의 法性偈科門</p> <pre> graph TD KM[科門] --- RSZP[現示證分] KM --- ZPT[指緣起體] KM --- AHTX[約利他行] KM --- BPHB[辨修行者方便 及得利益] RSZP --- YBLX[約自利行] RSZP --- YLQF[顯緣起分] RSZP --- YLTX[約陀羅尼理用 以辨攝法分齊] RSZP --- YLTS[即事 顯攝法分齊] RSZP --- YSHS[約世時 示攝法分齊] RSZP --- YWPS[約位 以彰攝法分齊] RSZP --- TLUY[總論上意] ZPT --- YLJH[約自利他行] BPHB --- MFB[明修行方便] BPHB --- BDY[辨得利益] </pre> <p>〈科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現示證分 ①②③④ 指緣起體 ⑤⑥ 約陀羅尼理用 以辨攝法分齊 ⑦⑧ 即事 顯攝法分齊 ⑨⑩ 約世時 示攝法分齊 ⑪⑫⑬⑭ 約位 以彰攝法分齊 ⑮⑯ 總論上意 ⑰⑱ <p>〈法性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約利他行 ⑯⑰⑱⑲ 辨修行者方便 及得利益 ⑳㉑㉒㉓ 明修行方便 ㉒㉓㉔㉕ 辨得利益 ㉖㉗㉘㉙㉚

5. 「법성계」의 내용 - “法性” 중심

의상 스님이 『화엄경』의 가르침에 대한 전체 내용을 어떻게 파악했는가는 『법계도』와 『법성계』라는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다. 바로 그것은 法界와 法

性으로 화엄사상의 전체를 드러낸 것으로 그 가운데 핵심은 法性이다. 다음은 법성계의 내용이다.

- ① 法性圓融無二相 법성이 원융하여 두 모습 없고
- ② 諸法不動本來寂 제법도 부동하여 본래 고요하다.
- ③ 無名無相絕一切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어 일체가 끊어진

자리이니

- ④ 證智所知非餘境 증득한 자체로 아는 바요, 다른 경지에서 알 수 없다.
- ⑤ 眞性甚深極微妙 진성은 매우 깊어 지극히 미묘하니
- ⑥ 不守自性隨緣成 자성을 지키지 않고 缘을 따라 이루어진다.
- ⑦ 一中一切多中一 하나 가운데 일체이고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이며
- ⑧ 一即一切多即一 하나가 곧 일체이고 많은 것이 곧 하나이다.
- ⑨ 一微塵中含十方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 시방을 포함하고
- ⑩ 一切塵中亦如是 일체 티끌 중에도 또한 그와 같다.
- ⑪ 無量遠劫即一念 무량한 긴 겁이 곧 일념(한순간)이고
- ⑫ 一急卽是無量劫 일념이 곧 무량한 겁이니
- ⑬ 九世十世互相印 구세와 십세가 서로 상증하여
- ⑭ 仍不離剛隔別成 의지하되 어지러이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 이루어진다.
- ⑮ 初發心時便正覺 처음 발심한 때가 곧 정각을 이룬 때이니
- ⑯ 生死涅槃常共和 생사와 열반이 항상 서로 화합한다.
- ⑰ 理事冥然無分別 이(보편적 원리)와 사(개별현상)가 그윽하여 분별 없으니
- ⑱ 十佛普賢大人境 십불과 보현의 대인 경지이다.
- ⑲ 能入海印三昧中 해인삼매 속에 들고자 하면
- ⑳ 繁出如意不思議 불가사의한 (법성계)여의주를 확실하게 잡들어
- ㉑ 雨寶益生滿虛空 허공 가득 보배를 비내려 중생을 이롭게 하니
- ㉒ 衆生隨器得利益 중생이 역량(器) 따라 이익을 얻는다.
- ㉓ 是故行者還本際 이러한 연고로 수행자가 근본자리에 돌아오고자 함에
- ㉔ 回息妄想必不得 망상을 쉬는 것으로不可하며 도달할 수 없는 자리이니¹²⁾
- ㉕ 無緣善巧捉如意 무연대비의 선교방편인 여의(법성계)를 잡아
- ㉖ 歸家隨分得資量 집에 돌아감에 문을 따라 자랑을 얻으라.

㉗ 以陀羅尼無盡寶 다라니 무진 보배로써

㉘ 莊嚴法界實寶殿 법계의 진실한 보배궁전을 장엄하여

㉙ 窮坐實際中道床 마침내 실제 중도자리에 앉으면

㉚ 舊來不動名爲佛 예로부터 움직임 없는 (법성)자리를 부처라 이른다.

IV. 맷는 말

의상의 화엄사상은 『화엄일승법계도』 1권에 집약되어 있고 핵심요의는 一乘으로, 삼승파의 관계 속에서 일승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온 세상 만물의 이치가 한 장의 圖印, 210자의 게송으로 표현되어 모든 법계가 한 몸이듯, 한 도인 속에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다. 한 글자, 한 구절도 보태거나 덜 것이 없는 화엄사상의 결정체가 바로 『화엄일승법계도』이다. 이러한 『화엄일승법계도』에 대한 갖가지 주석들을 정리하여 그 이해를 돋고 있는 『법계도기총수록』은 화엄사상 이해의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叢龍錄』에 보이는 의상계 화엄사상의 특징은 圓教一乘的 法性世界를 드러내고 있다. 이 法性은 우리의 몸과 마음인 五尺法性이 자신의 位를 움직이지 않고 공간적·시간적으로 相依性·緣生性·空性에 의해 통일된 하나임을 말한다. 즉 화엄적 존재 하나하나가 海印三昧에서 현현한 五尺法性性起이므로, 不住中道觀行으로 五尺法性性起인 舊來不動佛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眞性緣起論에서 는 因緣觀·緣起觀·性起觀의 三觀에 대응하여 六

10) 家란 '그늘로 덮어준다'는 주처의 뜻. 삼승의 견해로 보면 '존재의 본성이 睿者가 머무는 곳으로 宅이라고 하고, 大悲의 흘룡한 기량으로 중생을 보호하므로 舍'라고 한다. 일승에서는 존재세계 자체를 다라니家라고 부르며 이는 성자가 의지하여 머무는 곳이므로 家라고 한다.

11) 위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래로 경전의 편집과 유통,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에 힘입어 이루어진 '一乘法界圖合詩一印'에 의상 스님은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는 것을 사양하였다. '연으로 이루어진 제법에 주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하므로 누구든 주인이 될 수 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분별을 떠난 보살의 마음 쯤을 보아신 의상의 덕화가 아름답다. 그러나 천이백년이 흘쩍 지난 이 시점에 한국 화엄사상의 근간을 흔드는 '법성계' 저자 시비를 균여의 말을 빌려 일축한다. 해주, 「화엄의 세계」, p.292 "균여는 지엄의 「至相形狀」에 이 시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만 보아도 「法界圖」는 의상 찬술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균여 이후로는 「法界圖」 전체가 의상작임에 전혀 의심이 없게 되었다."

12) 이 구절을 번역함에 일반적으로 '망상을 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고 새기나, 고산 큰스님의 영향으로 새로 보기로 시도한다. '발심과 구경각', '생사와 열반', '이와 사' '십불과 보현의 대인 경지'는 닦아서 점차 망상을 쉬어서 얻는 삼승의 경계가 아닌 '일승법계'가 바로 드러난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五尺法性인 몸과 마음이 舊來成佛한 五尺法性性起임을 아는 자리에서 不住中道의 觀行이 呂념에 드러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相의 원리를 不住中道觀行으로 설명하고 있다. 數十錢法은 大緣起實相陀羅尼法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인데, 一이란 自性이 있는 一이 아니라 緣으로 이루어진 一이기 때문에一切가 그 속에 이미 성립되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一切緣生法이 無自性이므로 法性家의 實德이자 無碍自在한 法性境界인 것이다. 이는 화엄경「십인품」에서 “菩薩이 緣起法을 잘 관하여, 一法 중에 衆多法을 알고, 衆多法 가운데 一法을 안다”라고 한 내용과 상통한다. 數十錢法의 특징은 十錢을 헤아리는 비유로 다시 無分別·不自在·中道로 설명하는 것으로, 결국 大緣起實相陀羅尼法의 무분별이 궁극적 목표요 中道인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一 중의 十과 十 중의 一이 相互包攝하여 장애가 없으니 서로 배척하는 關係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 數十錢의 비유는 不住中道觀行에 대한 비유적 설명이다. 十玄緣起에 의한 觀法이 10門을 따라 十觀을 이룬 것은 알음알이(生解)를 기준으로 10문을 갖추어 설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행이 이루어짐(成行)에 준하여 10門을 갖추어 설하면 이른바 緣起라는 한마디에 모든 법이 나타나서, 하나가 많음과 어긋나지 않고, 많음이 하나와 어긋나지 않아서 즉 하나의 緣起觀이 이루어져 10門과 相應하는 것이다. 이 하나의 緣起觀을 觀하는 것이 곧 成行을 기준으로 한 性海果分만을 觀하는 것이 아니라, 3乘의 生解도 아울러 觀하여 치우침이 없을 때 머무름이 없는 하나의 分齊가 되므로 不住緣起中道觀이라고 하는 것이다.

12因緣은 곧 자체의 성품이 空하여 無我이므로, 緣生 등도 다른 법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緣起觀門을 들어서 諸法을 會通하셨으니, 일체를 분별하지 않음이 곧 실재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다. 이 不住中道觀行은 화엄사상의 특징이고 또한 의상계 화엄의 修證論이기도 하다. 이 修證論은 우리의 五尺法性이 본래 舊來成佛임을 말하는데, 舊來는 本來寂靜하다는 뜻이며, 不動은 모든 법의 不動을 말한다. 끝으로 一乘의 궁극적인 眞源에 철저하게 이르는 것을 中道라고 하고, 大記에서는 ‘因位에서의 배움이 궁극적으로 果位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

한다. 곧 中道란 三種世間으로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삼는 것이니, 한 물건도 나의 몸과 마음 아님이 없기 때문이다. 일승법계도에서 먼저 字相을 설명하면서 첫 法자와 끝 佛자를 가운데에 나란히 둔 것은 法性家의 진실한 性이 中道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총수록에서 中道의 의미는 우리의 五尺法性인 몸과 마음이 舊來成佛한 五尺法性性起임을 밝히고, 이것이 不住中道의 觀行으로 념념에 드러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

〈부록〉

- (표1) 一乘法界圖印 (표2) 一乘法界圖構成
 (표3) 三種世間圖 (표4) 義湘의 法性偈科門

〈참고문헌〉

■ 원전류

- 『大方廣佛華嚴經』60卷 大正藏 9.
 義湘, 「一乘法界圖」 韓國佛教全書 2.
 未詳, 「法界圖說總義錄」 大正藏 45.
 均如, 「釋華嚴教分記直通記」 韓國佛教全書4.
 均如, 「十句章直通記」 韓國佛教全書4.
 均如, 「一乘法界圖直通記」 韓國佛教全書4.
 「三國遺事」5, (한불전 6)

■ 단행본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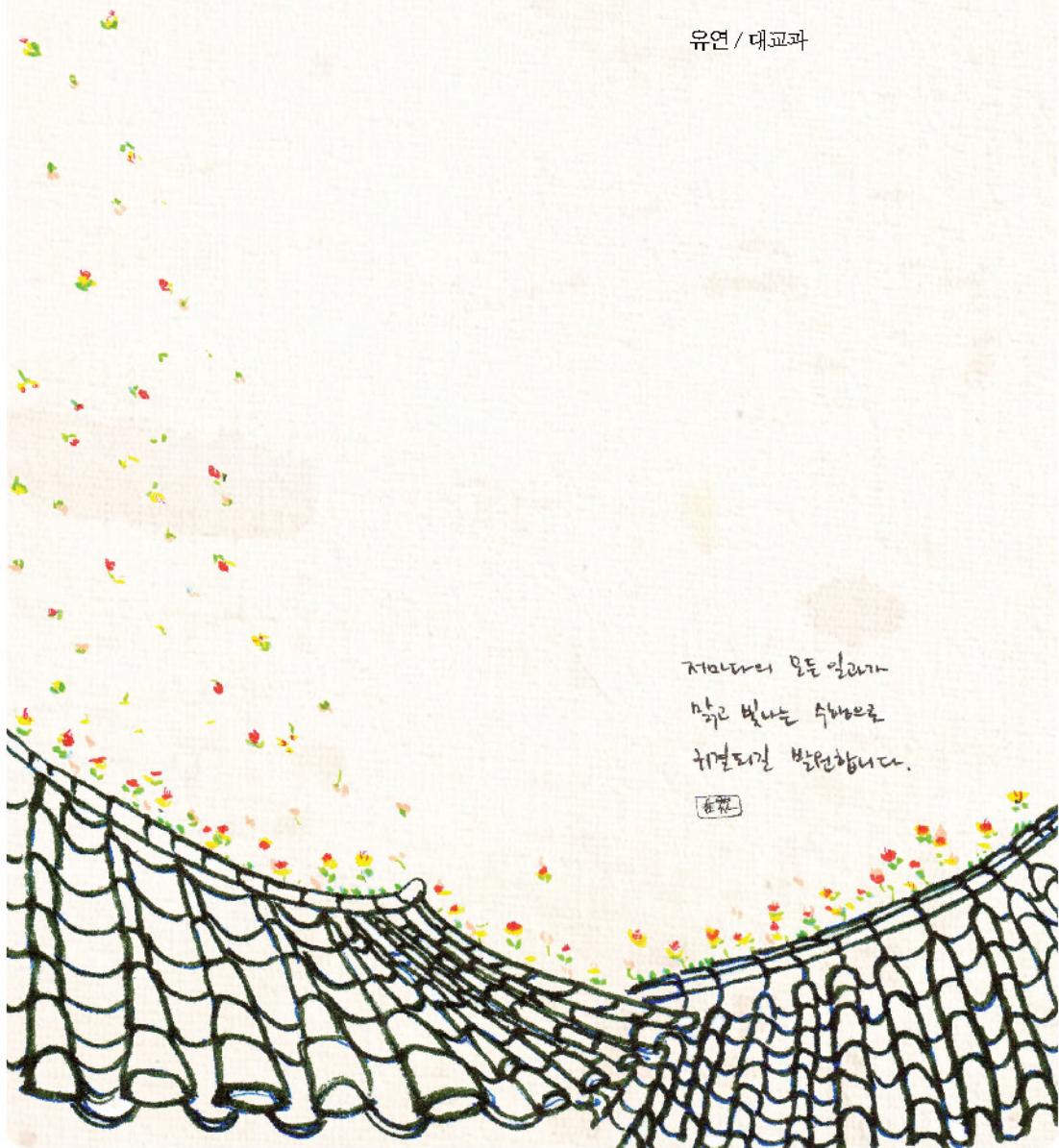
- 全海住, 「화엄의 세계」 민족사, 1998.
 全海住, 「義湘華嚴思想史研究」 민족사, 1993.
 金相玄, 「新羅華嚴思想史研究」 민족사, 1993.
 義湘撰/金知見譯 「一乘法界圖合詩一印」 초통, 1997.
 단허 정학회 「단허 강설집」「신화엄경합본」 불광, 2003.
 조계종, 「화엄오교정」, 조계종, 2001.
 이도업, 「화엄경사상연구」 민족사, 1998.
 박태원, 「의상의 화엄사상」 UUP, 2005.

■ 논문류

- 全海住, 「一乘法界圖의 著者에 대한 再考」
 全海住, 「一乘法界圖에 나타난 義湘의 性起思想」, 『韓國佛學』 13, 한국불교학회, 1988.
 全海住, 「華嚴六種種研究」 1-11. 『불교학보』 제31집.
 이기영, 「華嚴一乘法界圖의 根本精神」 『한국불교연구』 동국대불교연 구원 1982
 李種燦, 「義湘의 繫辭 一乘法界圖」 『韓國思想論文選集』 16, 1998, 불 학문화사
 박서연, 「도산정의 화엄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邊在亨, 「法界圖記義湘錄」研究, 동국대학교 석사, 2002.
 김귀주, 「군여『일승법계도원통기』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2002.
 김천학, 「군여의『華嚴一乘義』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 1999.
 박은정, 「화엄일승집현문」 연구,
 이홍구, 「의상·화엄관행」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 2003.
 劉熙丙, 「義湘華嚴思想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봄 날

유연 / 대교과



제작자와 모든 일과가
나를 빛나는 수준으로
구현되길 발원합니다.

【春】

용성 조사의 『歸源正宗』, 그 현대적 해석에 관하여 ③

원행 / 대교과

목 차

- I. 머리말
- II. 『귀원정종』의 수사학적 고찰
 - 1. 『귀원정종』의 구성과 내용
 - 2. 수사학적 구조의 고찰
- III. 철학적 해석학과 『귀원정종』
 - 1. 지평융합
 - 2. 현대적 해석의 실제
- IV. 맺음말

2. 현대적 해석의 실제

이러한 연구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흐름으로 신학과 견주어 불교학의 방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불교신학(Buddhist Theology)을 들 수 있는데 1996년 미국 종교학회(America Academy of Religion) 연례대회에서 새로운 분파로서 불교신학 연구 그룹이 발족되었다. 이 불교신학이 표방하는 것은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불교의 현대사회에 대한 계속적인 기여(the on-going contribution of Buddhism to the modern world)’를 공통적인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현대사회’에 대한 것이 최대의 이슈라는 점이다. 이제껏 과거 지향적 문헌 속에 갇혀 있던 불교를 현장의 것으로 끌어내어 지속적인 문제로 삼겠다는 전제가 들어 있다.³⁶⁾

김성철 교수는 기독교 신학의 연구 분야 중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³⁷⁾이 종교로서의 기독교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논의하면서 조직신학과 비견되는 체계적인 신앙으로서의 불교학인 ‘체계불학(Systematic Buddhology)’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불교가 아무리 학문적으로 발전을 거듭한다 해도 그 학적 영역의 밀바탕에 반드시 종교성이 자리해야 함을 말하며 새로운 체계불학을 세울으로써 연구자들이 깨달음으로 가는 정확한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표 교수는 ‘종교신학(Theology of Religion)’과 대칭 되는 개념으로 종교불학(Buddhology of Religion)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종교학과 세계종교 이해를 기반으로 한 불교의 새로운 인식 방법으로 넓게는 여러 종교들에 대한 불교학적 입장과 해석 모두를 종교불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종교불학은 불교와 세계종교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과 대화를 중요시하며 불교도 종교문화사와 인류정신사의 흐름 속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사실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³⁸⁾ 송현주 교수는 이 종교불학의 지형과 관련해 최근 서구의 종교학계가

학문 분과가 아닌 연구 분야로서 종합학문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볼 때 불교학과 종교학이 인접학문과 협동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³⁹⁾

종교학과 불교학의 연계와 마찬가지로 인문학과 불교학 또한 논의의 대상인데 강종원 박사는 「불교인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일찍이 불교인문학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다. 그는 불교인문학에 대한 여러 관점을 소개하고 그 범위와 지향점에 대해 논한다. 그는 「불교인문학」이 타학문과의 교섭 창구가 되는 지점으로서 일반 인문학자들이나 자연·사회과학자들과 공통적인 이해가 가능한 언어를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공존적 차원에서 교섭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⁴⁰⁾

김호성 교수는 『불교해석학 연구』에서 이러한 논의를 방법론적으로 전개시키면서 「다원적多元的」 독서법의 활용과 「격의格義」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마하트마 간디의 『바가바드기타』 읽기와 관련하여 간디의 자기철학 형성에 있어서 다원적인 독서방법이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불교 벡스트에 이러한 독서법의 활용을 제안한다. 또 그는 격의의 개념을 해석학적 보통명사로 설정함으로써 불교 이외의 입장에서 불교를 이해하는 방법론으로서 외전外典에 의한 내전內典의 해석을 새로운 격의불교로 규정하고 있다.⁴¹⁾

조성택 교수는 박제된 제도로서의 불교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어 나의 눈으로 불교를 바라보고 불교를 통해 나를 성찰하기 위해 불교인문학을 제안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보다 적극적인 불교적 사유를 통해 오늘날 문명의 폐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2015년 불교대학 산하에 세계불교학연구소를 설립한 바 있는데 이 연구소의 설립 취지는 국내 불교학의 세계화와 국제 불교학의 자내화自內化를 통하여 한국 인문학으로서 불교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세계의 불교학 연구, 동향과 과제 :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 1차 학술대회에서는 동아시아, 인도, 스리랑카, 독일, 미국 등의 불교학 연구 동향을 소개하였고 이 연구 발표는 논문집 『세계의 불교학 연구』로 출간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불교학 연구가 세계화되면서 불교학을 더 넓은 시야에서 조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⁴²⁾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불교인문학 강좌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주축이 되어 창립한 인문 공동체 시민행성에서는 불교인문학 강좌를 개최하고 「인문캠프」를 열고 있으며 후원 회원들의 참여 속에 이제까지 4회가 진행되었다. 정의평화불교연대(공동대표 이도흠)에서는 불교인문학 강좌 「눈부처학교」를 개설하고 있으며 제 5기

36) 이민용 교수는 오해를 야기할 새로운 조어造語로서 불교신학이란 이종교배적인 용어를 창안했는가에 대해 서구 불교학의 연구 방향을 재평가 하려는 비판적 시각이고 비판적 재평가를 거치면서 학문의 틀을 전환시켜 기하기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어휘가 주는 혼동보다 내용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민용, 「불교신학(Buddhist Theology)의 시도와 전망」, 『불교평론』 제 45호, 민해사상실천선양회, 2010

37) 조직신학이란 「계시된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인간 이성의 수단으로 보고 신학을 전체적인 관련 하에서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신학」이다. 기독교의 신앙 내용을 조직적으로 정리하여 마치 집을 짓듯이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이 조직신학의 역할이다. 김성철, 「Systematic Buddhology와 보리도차제론」, 『불교학연구』 제 3호, 불교학연구회, 2001, p.159

38) 인터넷 법보신문 2016년 1월 20일자 「김용표 교수 정년퇴임 회향강연회」 기사 참조.

39) 송현주, 「종교학으로서 종교불학의 지형과 방법」, 한국불교학회 동계 워크숍 2016 제 0호, 한국불교학회, 2016, pp.98~109

40) 강종원, 「불교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석림』 제 32집, 동국대학교 석림회, 1998

41) 그는 이러한 논의가 그의 「불교인문학」과 이어지는 맥락이라고 말한다. 김호성 著, 「불교해석학 연구」, 서울 : 민족사, 2009

42)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編, 「세계의 불교학 연구」, 서울 : 씨아이알, 2016

를 맞이하고 있다. 참불선원은 2016년 5월 2일부터 6개월간 한국 유명 스님과 저명 강사를 초청해 불교인문학 강좌를 열었다. 다양한 인문학 분야에 대한 폭넓은 강의로 유명한 스님과 석학들이 대거 강사로 참여했다. 또 동국대학교 학술연구원에서는 2016년 가을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사업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불교인문학 강좌를 열었다. 이밖에도 여러 불교인문학 모임이 결성되어 다양한 온·오프라인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불교를 이 시대의 언어로 말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불교학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종교학, 인문학으로서 불교학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새로운 시각으로 불교학을 재조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불교학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종교학, 인문학적 측면을 끌어내는 것이다. 격의를 통해 중국불교가 성립된 것처럼 불교학이 이러한 통섭 과정-새로운 격의-을 거치게 되면 시대적 방법으로 소통하는 가르침으로 그 면모를 일신一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논자는 불교해석학 연구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방법론에 대한 하나의 시범적 안案으로써 불교의 논쟁 전통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불교의 논쟁 전통은 보편성과 정확성에 근거하는 교리 논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논쟁은 교리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유 없이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입증된 교리의 보편타당성은 대론자, 특히 외도들로 하여금 결과에 승복承服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논쟁 전통은 불교논리학 분야에서 발전되어 왔고 티베트 불교의 경우 좀더 형식을 갖춘 뒤라(bsdus grwa)체계를 통해 이러한 전통을 계

승하고 있다. 앞서 동아시아 불교학의 연구 동향에서는 불교논리학 분야에서 불교학의 새로운 방향을 찾을 것을 제안⁴³⁾하고 있는데 논자는 이 가능성성을 한국 불교 내에서 살펴보자 한다.

『귀원정종』이 당시 불교에 가해진 타 종교의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대론자와 독자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용성이 선사의 입장에서 잠시 물려나 논증이라는 방식으로 불교 교리의 보편성과 타당성을 입증했기 때문이었다. 시대에 맞는 방법론의 모색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해석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논증이라는 방식은 지금 다시 새로운 논리학적 방법론의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한다. 이 논쟁 전통을 되살리는 것은 단순히 옛 전통을 복원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다시 구성하는 데 있다.

전통강원의 논강論講 체계는 이러한 새로운 논리학적 방법론의 후보로 꼽을 수 있는데 여기에 불교논리학의 논증 구조를 기반으로 뒤라 시스템과 같은 형식적 요소를 도입하면서 필요한 경우 서양 논리학도 참고하여 좀더 현대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체계화 작업은 이론적 검토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실제적인 논쟁실습 까지 다루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교리의 현대적 해석과 연구의 진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대학원의 불교논리학 분과 내에 불교의 논쟁 전통과 강원의 논강 체계를 연구하고 실습하는 움용 과목을 개설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승가의 축적된 자산資產을 활용하면서 학적으로도 방법론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분야는 불교학에 대한 철학적 반

43) 티베트 승원 교육의 가장 첫 단계에서 배우게 되는 뒤라 논쟁술은 인도불교에서 찾아볼 수 없던 변형變項의 사용과 같이 보다 테크니컬한 측면들이 강조되고, 형식화(formalization)되어 있어 현대적 응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티베트 불교논리학의 경우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목받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 인터넷 법보신문 2004년 3월 22일자 ‘세계의 불교석학 ⑬ 북교대학 오노다 순조(小野田俊藏) 교수’ 기사 참조.

성이 요구되고 있는 근래 학계의 흐름을 볼 때 방법론으로서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으며 논쟁 전통이 미약한 한국 불교의 성격을 볼 때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학적 성과를 일반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개적인 강좌를 개설하고 온라인으로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일반 대중에 맞추어 진행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깨달기’, ‘논리적인 마음공부’ 등의 강좌명을 사용하고 온라인의 경우 VOD(Video On Demand) 제공 등의 일방적인 전달 형식보다는 현재의 미디어 흐름에 따라 실시간 방송을 적극 활용하여 대중을 실시간으로 참여시키는 방안과 정기적인 개인방송을 통해 시청자를 정기회원으로 전환시켜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 그룹 내에서 연구된 주제와 텍스트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대중의 수준에 맞추어 진행한다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 불교해석학이라는 분야가 승가나 학계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 전반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이러한 약간의 보완을 통해 해석학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성찰은 불교를 좀 더 폭넓게 해석하려는 시도로서 본질적으로 수행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어떤 방법론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연구자의 해석 의도와 직결되는 것으로 반조직反照的 사유-자기철학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과정은 수행 자체와 연관되는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의 공유는 이타의 실현이라는 수행의 목적과도 통하는 바가 있다. 용성은 진리를 대각사상

으로 해석해냈고 모든 이들의 깨달음을 지향하는 대각사상의 기조基調는 바로 그의 삶과 수행 전체를 관통하는 그만의 수행정신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수행정신을 기저에 두고 전개된 방법론은 사유와 성찰에 깊이를 더하면서 『귀원정종』이 시대에 부합하는 호불론의 위치를 점하는데 일조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부합하는 수행정신을 모색하는 것으로 『귀원정종』의 현대적 해석에 다가서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용성이 자신만의 해석을 거쳤듯이 우리 또한 수행의 축軸을 찾기 위한 자기화 과정이 필요하며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연기緣起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논자는 연기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중중무진重重無盡한 연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화엄華嚴의 육상원융六相圓融⁴⁴⁾에서 그 단초端初를 찾아보고자 한다.

육상六相이란 총상總相, 별상別相, 동상同相, 이상異相, 성상成相, 과상壞相을 말하며 이는 총별總別, 동이同異, 성괴成壞라는 세 쌍의 대립되는 개념이나 모습이 서로 원융무애圓融無碍한 관계에 있어 하나가 다른 다섯을 포함하면서도 또한 각각 나름의 모습을 잃지 않음으로써 법계연기가 성립한다는 설說이다. 모든 존재는 다 육상六相을 갖추고 있으며 이 육상六相이 서로 다른 상을 방해하지 않고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이 일체가 되어 원만하게 융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육상원융은 전체성과 개별성을 함께 조화시킬 수 있는 원리로서 융합성과 다원성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적합한 중심축이 될 수 있다. 각각의 개별적 수행과 아울러 전체와 함께하는 조화성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수행의 핵심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공유성共有性을 이 개념은 갖추고 있는 것이다.

44) 육상원융六相圓融은 화엄무진연기華嚴無盡緣起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또 다른 측면으로 중시되고 있다. 이를 철학적으로 논의한 것은 세친의 『십자경론十地經論』이며 지론중 남도파인 혜원慧遠은 이를 받아들여 육상설六相說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혜원의 설을 지엄智嚴이 더욱 발전시켰고 법장法藏은 이를 완전하게 조직화했다.

논자는 이 육상원용을 현 시점에서 좀더 이해하기 쉬운 DIY(Do It Yourself)⁴⁵⁾라는 표현으로 다시 풀이해보고자 한다. 원래 ‘스스로 또는 손수 만들다’라고 해석되는 이 표현은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했으나 근래에는 다양한 기술을 동반하면서 제작자들과 사용자들이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가는 의미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서 가미되는 창작성과 독창성은 자기철학의 반영으로서 주체성을 표현하며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개방된 제작 과정은 누구나 그 과정을 공유하여 제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제적인 조화성을 나타낸다. 또한 제작과 제작 과정의 공유는 깨달음과 그 과정이 공유되는 가운데 일어나는 또다른 깨달음, 스스로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는 자각자타自覺覺他의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제작자와 사용자 사이의 허물어지는 경계는 별상의 주체성과 총상의 조화성을 동시에 드러내며 연기적 유연성, 육상의 원용을 표현한다. 이 DIY 개념은 중도적 표현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현 시대에 필요한 수행정신을 모든 이들에게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으며 이러한 현대적 해석을 통해 ‘육상원용’의 원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살아 있는 수행정신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행정신은 한편으로 이 시대의 호법정신에 대해 사유하게 한다. 별상이 총상을 성립시키면서도 총상으로 융합되어버리지 않듯이 조화와 공유는 분명 필요하지만 이는 각자의 주체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며 그렇기에 개별적인 주체성이 존중될 때 전체적인 조화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가 먼저 확립되어 있을

때 전체 속에서 분명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분명 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인정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가진 교리와 수행의 우수성을 다른 종교와 맞춰 평준화시킬 필요는 없다. 용성이 적극적으로 교리의 우수성을 드러내 불교를 향한 비난을 잠재운 것처럼 불교의 주체적인 면모를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것이 이 시대에 부합하는 호법정신이 될 것이다. 매스미디어(Mass Media) 시대 세련된 이미지 마케팅 기법이 현대적 호법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V. 맷음말

이제까지 근현대 불교의 선각자로서 불교를 이끌었던 용성 조사의 『귀원정종』을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조망해 보았다. 수사학의 관점에서는 그가 불교 교리를 재정립함에 있어서 설득적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적대적 타자를 어떻게 회통시키고 있는지 구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또 철학적 해석학의 관점에서 우리는 『귀원정종』과의 대화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확대 생산하는 지평융합과 그 해석적 실제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용성이 그의 수행을 어떻게 사상적으로 풀어내었으며 그의 삶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찾아야 할 바, 수행의 실천적 지평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는데 언어적 시설이 그 형태적 한계를 넘어 삶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 것은 곧 이타적 방편의 실현과 그 토대인 연기에 대한 자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용성의 의도를 우리가 이 시대에 공유하는 것임을 이해

45) 원래 DIY는 전문가 또는 업체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생활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만드는 개념으로 “네 스스로 직접 만들어라.”라는 뜻의 ‘Do it yourself’를 줄인 말이다.

하게 된다.

달을 보고 손가락을 보지 말라는 말은 사실 손가락 없이는 달을 볼 수 없다는 역설을 시사한다. 이는 수사학, 철학적 해석학과 같은 인문학적 방편이 분명 불교텍스트의 해석에서 핵심으로 향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문학적인 조망을 넘어서서 불교해석학이 그 자체로 새로운 해석학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이타적 모색을 통해서 불교를 접하는 이들이 앞으로 불교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불교의 유구悠久한 전통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능성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다.

의언진여依眞如에서 이언진여離眞如로 그리고 다시 이언진여에서 의언진여로 체體와 용用의 자유로운 이행을 보이는 『귀원정종』을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원정종』의 현대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류

- 김용표 著, 『포스트모던시대의 불교와 종교교육』, 서울 : 정우서적, 2010
김호성 著, 『불교해석학 연구』, 서울 : 민족사, 2009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编, 『세계의 불교학 연구』, 서울 : 씨아이알, 2016
백용성 著,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编, 『용성선사어록』, 백용성 대종사총서 제 1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6
백용성 著,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编, 『각해일륜』, 백용성대종사총서 제 2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6
불심 도문 著, 범보신문 编, 『연기법의 생활』,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사 출판부, 2010
용성 진종 著/원조 각성 譯, 『諤源正宗』, 서울 : 나가원, 2013 (죽림정사, 용성 진종 조사 유흘실현후원회, 정토희 유포본)

■ 논문류

- 강중원, 「불교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석림』 제 32집, 동국대학교 석림회, 1998
강중원, 「불교학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불교평론』 제 15호, 만해사상실전선양회, 2003
김상우(정원), 「『解門四種綱要』에 나타난 선종오가 교의의 특징」, 『한국선학』 제 30집, 한국선학회, 2011
김석수, 「가다마에 있어서 이해의 문제」, 『철학논집』 제 8집, 1997
김성철, 「Systematic Buddhology와 보리도차제론」, 『불교학연구』

제 3호, 불교학연구회, 2001

고영섭, 「응용불교학의 사상적 근간」, 『석림』 제 37집, 동국대학교 석림회, 2004

권형랑, 「가다마의 철학적 해석학에서 적용의 문제」,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박상숙, 「가다마의 철학적 해석학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배경아, 「불교학의 연구방법론 불교인식논리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 76집, 한국불교학회, 2015

백승현, 「가다마의 철학적 해석학과 인간학」, 『사회과학연구』 제 19집,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3

송현주, 「종교학으로서 종교불학의 지형과 방법」, 한국불교학회 동계워크숍 2016 제 0호, 한국불교학회, 2016

신규탁, 「각해일륜」 분석 동북아시아불교의 전통과 관련하여-, 『大覺思想』 제 11집, 대각사상연구원, 2008

신규탁, 「귀원정종과 용성조사」, 용성스님 오도 123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장수 : 죽림정사, 2009

윤원철, 「불교학과 종교학」, 『불교학연구』 제 18호, 불교학연구회, 2007

이민용, 「불교신학(Buddhist Theology)의 시도와 전망」, 『불교평론』 제 45호, 만해사상실전선양회, 2010

이온자, 「법륜의 〈眞間鵠喻說〉에 나타난 불교 수사학 -로고스를 중심으로-」, 『선문화연구』 제 19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5

이중수,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정승석, 「원전해석학의 새로운 조명」, 『東國思想』 제 22집,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1989

조명화 · 김효신, 「問答의 수사학 -《孟子》〈萬章篇〉과 《弘明集》의 〈牟子理惑論〉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문학』 제 44집, 한국중국어문화학회, 2005

조준호, 「경전 상에 나타난 호국불교의 검토」, 『大覺思想』 제 17집, 2012

최경진, 「티벳불교 승원의 논리학 입문서 두라(bsdus grwa)의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한영애, 「용성의 대각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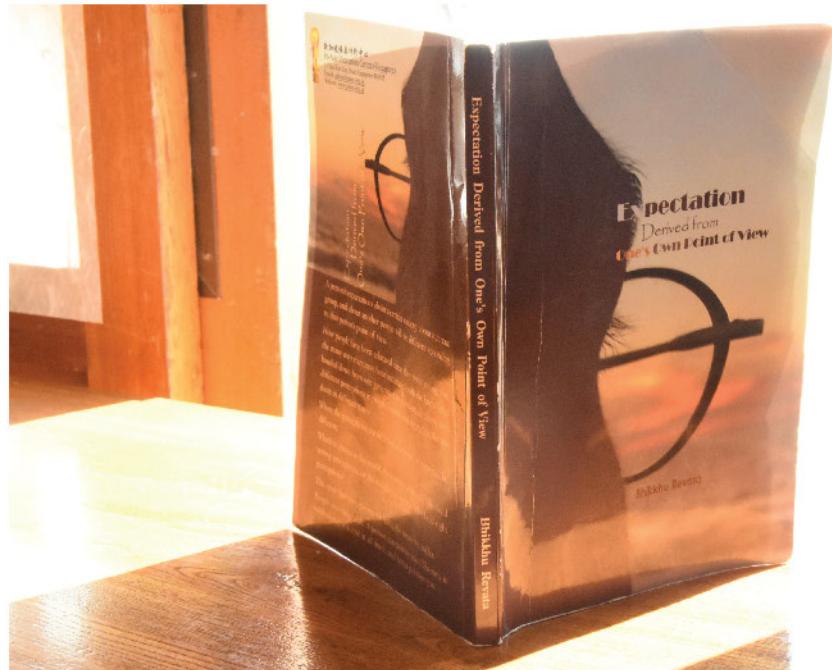
호정, 「용성 선사의 선사상」, 『한국선학』 제 34집, 한국선학회, 2013

호정, 「용성선사의 대각사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 사이트

범보신문 <http://www.beopbo.co.kr>

불교평론 <http://www.budreview.com>



기대 없이 수행하기

혜정 / 대교과

우리는 기대와 희망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만약 아무런 기대 없이 산다면… 절망적인가요? 그런데 기대가 없기에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대가 절망의 원천이 아닐까요? 여기 아무런 기대와 욕심 없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수행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지난 몇 개월 동안 번역한 레와파 스님의 ‘자신의 견해에서 나온 기대(Expectation derived from one's own perspective)’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것은 은사스님의 권유에 의해서입니다. 지난해 겨울철이 시작할 무렵 은사스님께서 당신의 스승, 레와파 스님께서 3월 말 한국에 오실 예정인데 그분의 책을 제가 번역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영어책 두 권이 담긴 소포를 보내셨습니다. 번역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겨울철의 생활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회주스님의 시자 소임을 사는 것과 레와파 스님의 책을 번역하는 것. 이렇게 단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단순한 삶이 좋았고 들다 보람 있는 일이었기에 행복했습니다. 현재 레와파 스님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미얀마의 수행처인 파욱 또야에서 수행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 지녔던 견해와 깨달은 후 지녔던 견해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견해이고 그것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레와파 스님의 법문에 기초한 1부와 질의응답의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부처님이 아직 보살이었을 때 그가 옳은 것을 그르다고 간주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간주하면서 수행하다가 이후 견해를 개선하여 바른길을 걷게 된 과정을 다룹니다. 이것은 아마도 소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히 깨닫기 전 보살이었을 때 그는 두 명의 스승으로부터 8가지 선정을 모두 배운 뒤 ‘이것은 법을 깨닫기 위한 것도, 각성을 위한 것도, 고통을 끝내기 위한 것도, 완전한 깨달음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두 스승을 떠나 고행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가 이 8가지 선정이 바른길이 아니라고 생각한 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고 또한 조띠빨라로서의 전생에 깃사빠 부처님과 관계해서 지은 악업 때문입니다. 그 악업이란 그가 깃사빠 부처님을 대머리한 자라고 부르며 ‘겨우 6일의 고행으로 어떻게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6년을 했다면 모르겠지만.’이라며 자만이 담긴 마음으로 그분이 부처님일 수 없다고 말한 구업입니다. 그 악업이 열매를 맺자 그는 그른 견해를 바르다고 믿으며 6년 동안 잘못된 수행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6년간의 고행 후 그의 견해는 바뀌었습니다. 그는 고행을 버린 후 살라숲에서 15일간 수행하여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15일간 어떤 수행을 했을까요? 그가 한 수행은 다름 아닌 그가 이전에 잘못된 길이라고 믿었던 선정수행이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깨닫기 전 마지막 수행대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선정의 법이었습니다. 초선에 들었다가 나와 초선의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무상, 고, 무아를 숙고하여 첫 번째 도의 지혜와 과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사선정까지 나아가 그는 아라한과를 얻고 완전히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듯 부처님께서는 다름 아닌 삼매를 통해 그리고 그 삼매의 법들을 숙고하는 통찰명상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을 이르셨습니다. 부처님처럼 우리도 삼매를 얻게 되면 자신의 몸에 어떤 고통이나 불편함 없이 오랫동안 편안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찰명상 중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느끼면 선정에 들어가 쉬며 스스로를 다시 생기 있고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은 고된 수행 가운데 정신적 휴식을 제공하는 마음의 숲이 되어줍니다. 저자는 삼매가 이렇게 통찰명상의 토대가 되며 삼매 없이는 도와 과의 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그 길고 고된 수행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책은 잘못된 수행법들과 그것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몸에 일어나는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것을 ‘고통… 고통… 고통…’이라고 이름 붙이며 관찰하라고 가르치는 수행법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자는 오직 삼매의 행복을 통해서만 궁극적인 행복인 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삼매 없이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부처님께서 완전히 깨달은 후 ‘비구들이여, 삼매를 뒤아라. 삼매를 뒤은 자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부처님 당시부터 삼매를 계발하지 않고 곧바로 통찰명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종류의 수행자들, 빨리어로는 사마타야니까(samathāyanika)와 솟다위빠사나야니까(suddhavipassanāy nika) 중 ‘솟다위빠사나야니까’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들에게도 결국 삼매에 거의 근접한 근접삼매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법을 듣기만 해도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물론 부처님 당시에 명상을 수행하지 않고 단지 법을 들음으로써 아라한이 되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지금의 시대는 계율, 선정, 지혜 수행을 체계적으로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시대라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는 오직 부처님만 매우 깊고 심오한 궁극적 물질과 정신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때 수백만 번 일어나고 소멸하는 그렇게 심오한 정신과 물질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새로운 물질과 새로운 정신으로 대체하여 몸의 행동을 물질로, 그 행동을 아는 마음을 정신으로 한다면 법을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궁극적 물질과 궁극적 정신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원자구성입자와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수행자들의 실제 경험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견해가 아니라 바른 견해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지 ‘쓸모없는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파괴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쓸모없는 사람’은 가짜 법을 가르치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 승려들을 의미합니다. 출가한 자들이 법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바른 법을 전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들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바른 법을 알지 못한다면 진리라고 생각하는 아무 가르침이나 널리 퍼뜨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파괴하는 데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짜 법이 아니라 정법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저자는 빨리 장로계경(Theragāthapāli)의 ‘아는 자는 아는 자를 안다. 아는 자는 알지 못하는 자를 안다. 알지 못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자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자는 아는 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제송을 소개하며 우리의 무지를 경계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알지 못하는 자입니까?

이와 같이 이 책의 1부에서는 부처님의 생애와 현재 행해지는 잘못된 수행법들의 예들을 통해 삼매의 필요성과 유용성, 바른 수행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정견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행하는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의문들에 대한 레와파 스님의 답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창조자는 있는가?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선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열반은 하나의 영역인가? 그리고 깨닫는 순간에 마음이 멈추는가? 등과 같이 수행과정 중 생길 수 있는 실제적 문제들에 대해 저자는 상세하고 명료하고 열정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책을 번역하는 내내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삼매를 닦는 것. 통찰수행을 통해 궁극적 물질과 정신을 실제로 보는 것. 연기수행을 통해 스스로의 전생을 보는 것. 그리고 실재하는 열반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생각만 해도 기枢 설레는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 이 책의 제목처럼 '자신의 견해에서 나온 기대'는 들뜬 마음을 일으켜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욕심이 사라진 고요함 속에서 일개의 견해가 아닌 깨달음의 통찰이 나오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법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바른 원인들을 차곡차곡 채운다면 그에 따른 바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법을 만나게 해주신 시아본사 부처님과 그것을 이어가신 모든 스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바른 법을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설해주신 저자, 레와파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화주스님께서는 시자학인이 번역하는 것을 보시고 따뜻이 격려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책을 번역하도록 권유하신 은사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 중 '끝이 없는 추구를 끝내기'라는 부분의 한 단락을 인용하는 것으로써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삶은 불확실합니다. 죽음은 확실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무지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 우리가 모든 감각적 쾌락을 이미 다 맛보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또다시 이러한 즐거움을 원하며 그것들을 추구하고 끝도 없이 그것들을 열망합니다. 우리의 생은 이러한 추구가 끝나기 전에 그것의 끝에 이를 것입니다. 끝이 없는 추구를 끝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없는 여행을 끝내야 합니다. 그 대신 끝이 있는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대와 욕심 없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우리 모두 바로 이 생에서 수행에 전념하기를!

우리 모두 바로 이 생에서 있는 그대로의 법을 보기로!

우리 모두 바로 이 생에서 열반을 보아 고통을 끝낼 수 있기를! ●

* 본 글에서 소개한 책, '자신의 견해에서 나온 기대(Expectation derived from one's own perspective)'는 불다선원의 홈페이지 www.buddhasaрай.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뇌 피질-브로드만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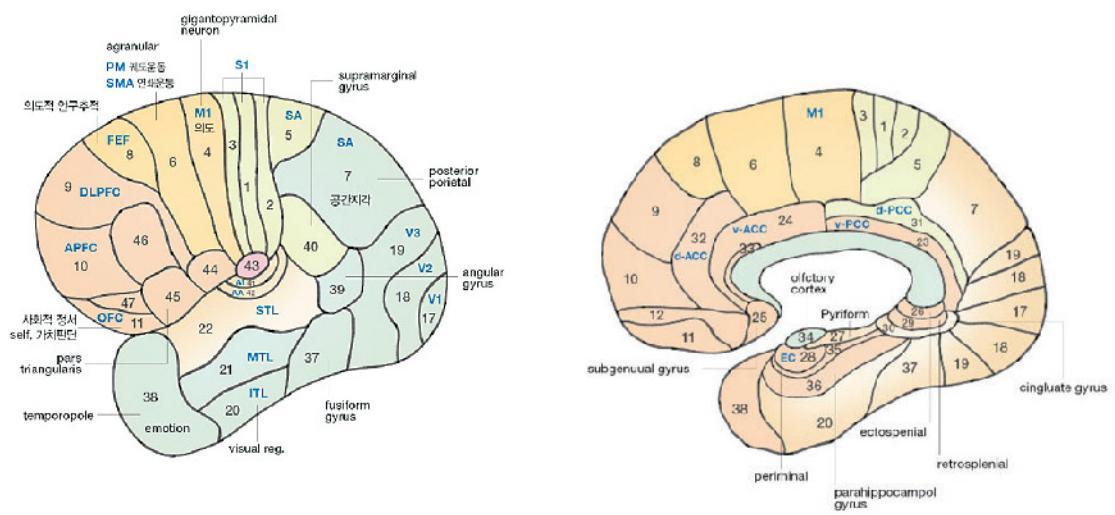
대뇌 피질은 브로드만의 세계지도이다. 지구표면이 200개가 넘는 국가로 구분되듯이, 인간 뇌의 대뇌피질은 브로드만이 지정한 52개의 영역으로 분할된다. 1900년대 초기에 독일 뇌 과학자 브로드만이 대뇌피질 세포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세포조직학적으로 유사한 세포영역들을 표시한 브로드만 뇌 지도는 대뇌피질 영역을 숫자로 구분하여 표시했다. 브로드만이 구분한 뇌영역은 좌우 반구의 표면과 뇌량을 절단하여 드러난 좌우반구 내측면의 피질에 영역표시 지도를 만들었다. 좌우 반구가 거의 대칭이므로 한쪽 반구의 표면과 내측면의 브로드만 영역만 익숙해지면 된다.

좌반구 대뇌피질의 브로드만 영역을 그리는 방법은 대뇌반구를 그린 후 중심고랑(central sulcus)과 중심고랑 밑의 미각피질인 43번을 먼저 그린다. 43번의 오른쪽으로 브로카 영역인 44번과 45번으로 그리고, 45번 위로 배외측전전두엽인 46번을 그린다. 브로카 영역과 배외측전전두엽의 위치를 먼저 그려야 브로드만 영역의 구획이 전체적으로 잘 결합된다. 그 다음으로 중심고랑을 기준 축으로 하여 일차 체감각 영역인 3번, 1번, 2번 영역을 차례로 그리고, 중심고랑 앞쪽의 일차 운동피질인 4번을 그리고, 연합 체감각 피질인 5번을 그리고, 전운동 영역, 보완운동영역인 6번, 다시 연합체감각피질인 상두정엽의 7번을 그린다. 전두안구영역(frontal eye field), FEF 8번을 쪄기 형태로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배외측전전두엽 9번, 전전두엽의 앞쪽 영역인 10번, 안와전전두엽 11번을 그리며, 11번 영역내로 수평으로 가느다란 47번 영역을 그린다. 측두엽의 브로드만 구획은 일차청각피질인 41번과 연합청각피질인 42번을 43번 아래영역에 차례로 그리며, 하두정엽에 위치하는 40번 supramarginal gyrus 영역과 각회/angular gyrus 영역 39번, 방추회/fusiform gyrus 37번 그리고, 측두극/temporal pole 영역인 38번을 그리고, 하측두엽(inferior temporal lobe) ITL 20번, 중측두엽MTL 21번, 상측두엽STL 22번이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각영역인 삼차시각 19번, 이차시각 18번, 일차시각 17번을 후두엽에 차례로 그리면 대뇌반구 표면의 브로드만 지도는 완성된다.

브로드만 뇌 지도

박문호

인간의 뇌의 기능은 대뇌피질의 역할을 이해하면 된다. 브로드만Brodmann 뇌지도와 칼 클레이스트Karl Kleist 뇌지도를 공부하면 인간 뇌의 작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 브로드만Brodmann 뇌 지도 〉

뇌량(corpus callosum) 절단으로 드러난 대뇌반구 한쪽 피질의 브로드만 지도는 전체 그림을 한꺼번에 그리지 않고 전두엽, 두정엽만 우선 그린 다음, 브로드만 영역을 세부적으로 그려가면 측두엽과 후두엽 형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리는 순서는 뇌량보(splenium) 바로 아래 영역인 26번, 29번, 30번을 차례로 그리고, 30번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가느다란 영역인 이상엽피질 27번을 그린다. 이상엽 피질에 접하여 내후각뇌피질(entorhinal cortex) EC 34번과 28번을 그리고, 그 아래로 가느다란 비주위피질(perirhinal cortex) 35번, 해마방회(parahippocampal gyrus) 36번을 그린다. 측두엽의 앞쪽의 측두극 38번, 하측두엽 20번, 방추회 37번을 그린다. 다시 전두엽과 두정엽의 브로드만 영역은 안와전전두엽 11번과 12번을 그리고 뇌량과 12번 사이의 좁은 영역에 수직으로 뇌량무릎아래 피질인 25번을 그리고 25번을 기점으로 뇌량을 따라 좁은 띠 형태로 전대상회(anterior cingulate cortex), ACC의 일부인 33번과 배쪽전대상회vACC 24번을 그린다. 배쪽 전대상회 24번 영역과 이어진 구조로 등쪽 후대상회dPCC 31번, 배쪽 후대상회vPCC 23번을 그리고, 중심열을 31번 앞쪽에 설정하고, 일차 체감각 영역 3번, 2번, 1번을 차례로 그리고 일차운동피질 4번, 연합체감각피질 5번을 그리고, 전운동, 보완운동 영역 6번, 연합체감각영역 7번을 차례로 그린다.

전전두엽은 보완운동과 전운동 영역인 6번과 8번을 그린 후, 8번의 아래쪽에서 안와전전두엽 12번까지 등쪽 전대상회dACC 32번을 그리며, 8번에 접하여 배외측전전두엽DLPEC 9번, 전두극 10번을 그린다. 마지막으로 상두정엽 7번과 방추회 37번 사이에 시각피질인 19번, 18번, 17번을 그려 넣으면 두 번째 브로드만 지도는 완성된다. 두 개의 브로드만 지도 그리는 순서에서 빠진 영역은 뇌섬 13번과 인간 이외의 영장류에만 발견되는 14번과 15번이 있다.

브로드만지도를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는 첫째, 인간뇌의 영역별 기능을 공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바탕이 된다. 둘째, 인간 뇌의 기능적 특징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다.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의 큰 영역들이 세부영역으로 구획되면서, 전두엽의 운동관련 피질과 측두엽의 기억, 두정엽의 체감각, 후두엽의 시각으로 대뇌피질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셋째, 지난 100년 이상 브로드만 지도를 바탕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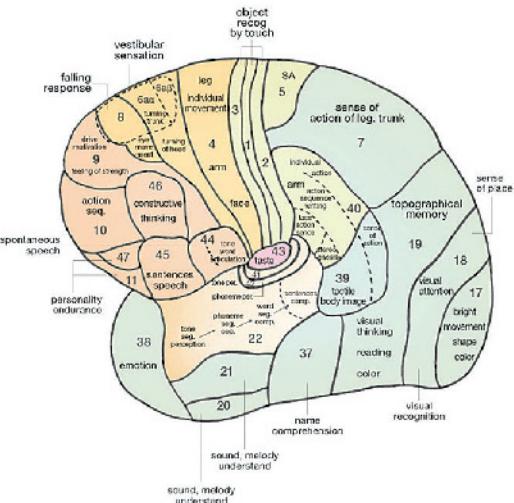
로 대뇌 피질의 영역별 기능을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브로드만 지도에 익숙해지면 인간 뇌의 기능이 점차로 분명해진다. 브로드만 지도는 영역별 뇌 기능의 세계지도이다.

인간 대뇌 피질의 기능

인간 뇌 브로드만 지도는 뇌 작용 지도이다. 대뇌피질 영역별 기능을 안다면, 감각, 지각, 기억 처리과정을 공부할 바탕이 된다. 시각피질을 살펴보면, 17번 1차 시각피질은 색, 형태, 움직임, 밝기를 처리하며, 18번 2차 시각피질에서 시각주의, 시선이동, 장소감각이 생성된다. 시선이동은 안구도약운동으로 2차시각 피질에서는 무의식적 안구도약운동, 전두안구영역에서는 의식적안구도약운동을 처리한다. 장소감각은 어떤 장소에 대한 익숙함과 관련이 있다. 19번 3차 시각영역은 색체지각, 시각재인, 시각사고, 글 읽기, 숫자 재인, 산수계산, 장소에 대한 상세 기억이 생성된다. 20번 하측두엽은 소리와 음악에 대한 분류와 이해가 일어나며, 21번 중측두엽은 귀기울이는 움직임과 청각 주의집중 작용을 만든다. 2차 시각영역에서 시각주의처럼 중측두엽에서 청각주의가 생긴다.

22번 상측두엽의 작용은 상측두엽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소리 톤 서열, 음운 서열(phoneme sequence), 단어 서열을 처리하며, 소리 톤 연속은 지각(perception)되며, 음운과 단어의 서열은 이해(comprehension)된다. 지각은 대뇌피질에서 일련의 감각정보처리 과정이 자각되는 현상으로 중요한 지각은 기억되어 행동에 반영된다. 청각과 시각에서 연속되는 자극을 대뇌피질이 구획지어 구분하면서 지각의 범주화가 된다. 청각은 연속적 소리 서열을 시간범위로 구획하면서 소리의 범주화가 생기며, 소리의 시간적 범주화가 청지각이 된다. 시각은 장소와 사물에 대한 공간적 구분으로 시지각의 범주가 생긴다. 즉 연속적인 서열을 형성하는 청각과 시각 자극 흐름을 시간 간격으로 구분하면서 소리에 대한 감각이 지각으로 전환되며, 빛 자극을 공간 간격으로 구분하면서 빛 에너지 흐름이 시지각으로 인식된다.

감각에서 지각을 바꿔는 과정의 핵심은 자극의 서열이며, 뇌 속에서 발생하는 자극 서열의 실체는 신경세포가 만드는 전압펄스의 서열이다. 결국 감각과 지각의 바탕은 신경세포 작용이 분명하며, 구체적으로 신경세포가 생성하는 전압파의 연속적인 흐름을 대뇌피질의 작용으로 청각, 시각, 촉각으로 구분하여 우리가 지각할 뿐이다. 핵심은 신경세포가 생성하는 전압파의 서열이며, 전압펄스 서열을 전달하고 저장하는 현상을 감각, 지각, 기억이라 한다. 22번 상측두엽에서 소리 톤의 서열을 지각하고, 음소 서열과 단어 서열을 이해하는데, 음소 서열이 바로 단어가 되며, 단어 서열이 문장이 되므로 상측두엽의 맨 뒤쪽 피질



〈 칼 클레이스트Karl Kleist 뇌 지도 〉



은 문장을 이해하는 영역이 된다. 청각처리 피질은 앞쪽은 측두극 피질이며, 감정과 정서를 처리하는 영역으로 인간의 목소리는 대부분 감정적 리듬과 악센트가 있어 측두극에서 감정처리를 한다.

브로드만 7번 후두정엽은 다리와 몸통의 운동과 감각을 처리한다. 시각과 청각을 처리하는 일차피질은 어느 정도 순수 감각성분만 존재하지만 감각연합피질에서는 감각과 운동을 명확히 분리하기 힘든다. 특히 촉각은 감각과 운동처리가 함께 일어나는 감각-운동(sensorimotor) 피질로 통합적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체감각인 촉각, 통각, 온도감각은 몸 움직임이 곧 새로운 감각을 생성하므로 운동과 감각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엮여져 있다. 반면에 시각과 청각은 바깥 자극원에서 신체로 입력되는 감각으로, 빛과 소리가 보이고 들리게 될 때까지 시간 간격이 있다. 빛과 소리가 날아오는 수 밀리초 걸리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대뇌 신 피질은 자극원까지 거리와 방향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계산 결과 우리는 날아오는 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체감각은 신체 움직임 그 자체가 감각을 생성하며, 체감각을 처리하는 신체지도가 7번 영역에는 다리와 몸통, 40번 영역의 위쪽은 팔, 아래쪽 일부는 얼굴 체감각 지도가 있다. 다리는 몸통 지지와 이동 기능에 구속되어 있지만, 팔의 움직임은 자유롭다. 그래서 40번 가운데 영역이 팔 운동의 연속과정을 처리하며, 팔의 말단인 손가락의 능숙한 움직임으로 인간은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문자를 발명하게 된다. 글쓰기는 손과 손가락의 운동과 이에 동반한 감각의 변화가 능숙하게 펼치는 감각-운동 놀라운 연속동작이다.

앞쪽 뇌의 운동정보 처리 방향은 전두극인 10번은 운동의 서열, 배외측전두엽 46번은 구성적 사고작용을 만든다. 구성적 사고 작용은 언어로 표상된 운동계획에서 언어의 순서조작으로 의도적 생각을 만드는 과정이다. 영어에서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교환하여 의문문을 만들고, 단어를 구성하는 개별음소의 엑센트를 주어 언어에 감정을 담고, 동사의 어미를 변화시켜 과거형과 현재형을 구별하는 과정이 바로 구성적 사고작용이다. 구성적 사고를 통해 인간은 수동적 동작에서 능동적 행동을 계획하고 선택하게 된다. 웬 수면 동안 시각연합피질인 19번이 활성화되어 눈을 감고 수면중에 시각영상이 상영된다. 19번 영역은 시각적 사고와 장소에 대한 상세한 기억을 처리하여, 꿈 내용에 등장하는 장소와 언어에 의한 생각보다 시각적 장면의 연결이 생각을 생성한다.

우리는 단순히 물체만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의 용도까지도 지각하므로 지각은 행동을 촉발한다. 그리고 동작은 현재 진행중인 지각의 흐름과 동기화되어 있으며, 동작이 만든 시각 자극에 의존한다. 선택주의가 신체에 대한 내부 표상을 외부공간의 지각과 통합하며, 신체표상은 기억된 시각 공간과 통합되고, 자아의식은 이러한 통합된 표상 안에서 작동한다. ☺



박문호

1979~1986 경북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1991~1993 미국Texas A&M 대학 전자공학 석사
1993~1996 미국Texas A&M 대학 전자공학 박사

1987~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근무
2007~2011 독서 공동체 백북스 공동운영위원장
2010~2010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위원회 위원
2014~2014 미래청년과학부 '국가대융합전략 기획위원회' 위원
2012~현재 공익사단법인 '박문호의 자연과학세상' 이사장

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種種法滅

‘마음이 일어나면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멀하면 가지가지 법도 멀한다.’

편집부

산천에 돌아나는 연초록의 새 순들처럼 호거산자락에 신선한 불이 왔습니다. 고요한 선방 속 가부좌를 틀 납자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참선의 기쁨이 만개한 매화꽃 끝에 맺힌 듯합니다. 초심자의 몇 가지 질문을 안고 문수선원 도감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공부하셨던 말씀 청해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화두를 타기 전에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내가 굳게 믿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잘 안 되면 기도도 하는데, 이것은 마음을 굳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화두 받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삭발할 때 3천배 하고 삭발하면 마음이 더 단단해지듯이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저는 화두를 화엄 때 탔는데, 많이 헷갈려 했어요. 어느 날 ‘왜 이렇게 맹탕일까?’ 하며, ‘남들 학교 간다는 데 나도 학교 갈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 ‘이 공부에서 퇴전하지 않겠다’고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방만 다니고 있잖아요.

중간에 힘들면 성지에 가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중간 중간에 발심이 되면 그 발심이 커져서 고목나무에 뿌리내리듯이 믿음이 깊게 내리게 되지요. 그러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이 공부가 아니면 내가 구제 받을 수 없겠다’ 하고 생각이 돼요.

화두는 어떻게 타야 합니까?

믿음이 가는 스님께 타야 돼요. 믿지 않으면 강하게 와 닿지 않고, 화두를 탔으면 다 걸고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중간에 화두에 대해서만 의심을 하되 다른 부분에서 의심하면 안 돼요. 강원 졸업 후 선방을 다니다가 몸도 힘들고 계속해야 하나 생각이 들 만큼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화두를 믿는 것이었고, 화두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을 믿고 따르려면 부처님께서 했던 것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행을 하는 것이 참선이고, 어떻게 하면 나도 내면의 부처를 발견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내 몸을 던져야 해요. 몸을 불사르지 않고는 이 공부는 절대로 성취가 안 돼요. 바닷물을 배부르게 마시지 않아도 짠맛을 아는 것처럼 정말 내 몸을 던져서 공부해야 돼요. 몸을 던지기에는 자기 청춘이 아깝고 억울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그 맛만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의심이나 과정 속에서 힘든 점은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럴 때는 발원을 해야 돼요. 발원이 곧 애원인데 부처님께 매달려서 기도도 하고, 화두를 할 때 죽자사자 덤벼 봤어요. 보통사람들은 내 몸이 소중하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화두 챙기는 것은 차를 먹는 것과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차 맛을 모르지요. 먹다가~ 보면 오늘 차를 안 마시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마름을 느끼게 되지요. 음악도 특히 클래식은 처음에는 뭔지 몰라요. 듣다가~ 보면 그 음악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화두도 하다 하다보면 간절하다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다가 하다가 보면 되는 게 화두라는 거지요. 그게 참 힘들어요.

의심이 가면 화두 주신 스님께 가서 점검을 받았는데, 점검도 공부를 해서 반드시 평계를 만들어서 여쭈어야 해요. 아무것도 없이 큰스님 앞에 가서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큰스님들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거든. ‘어째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여쭤보고 큰스님 얼굴 보면서 한마디라도 듣고 하면 또 믿음이 생겨요. 화두 챙기기는 거듭거듭 내 마음을 챙겨야 돼요.

하다보면 몸도 힘들고 세포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느낄 만큼 민감해져요. 밥 먹는 것도 내 몸 챙기는 것도 오로지 선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방스님들은 부처되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호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화두 자체이고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하고 가셨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권합니다. 쉽다고 생각



하면 정말로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어려운데 쉽게 만드는 것도 어렵게 만드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거지요.

경전도 같이 보셨습니까?

경전은 큰스님들 강의를 듣곤 했는데, 사실 화두 외에 의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보고 알음알이를 내어서 생각을 불일까봐 그랬는데 필요하면 경전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다가 장애가 생기면 참회도 합니다. 화두 쟁기면서 스님들이 108배를 많이 해요. 알게 모르게 자온 죄가 평평 데집니다. 장애가 자꾸 오고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옛날 스님들도 늘 참회를 함께 하라고 권하셨어요. 요즘엔 여행가면 배낭무게로 자기 업을 안다고 하는데 그 렇듯이 선방에 앉으면 좌복 위에서 업의 무게를 느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살아 있기 때문에 다 아프다고 하는 건데, 아픈 것을 놓아 버리고 화두를 더 강하게 쟁기면 망상이 딱 떨어지고 아픈 것도 잡을 수가 있어요.

공부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 묻고 얘기 합니까?

믿었던 큰스님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에 의심이 나고 자꾸 경계가 오고 해서 결제 중에 큰스님께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큰스님도 정진 중에 묵연하시면서 답장을 해 주셨어요. ‘공부하는 중에 오는 경계’라고 적어주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뭘 해야 되겠다 싶으면 바로 해요. 서두르지도 않고 뒤돌아볼 것도 없이 바로 해야 돼요.
먹는 것은 먹고 싶으면 바로 먹잖아요. 나도 안 해본 기도가 없을 만큼 다양하게 해 봤어요.
무조건 그냥 했어요. 그것이 그때마다 나를 잡아주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지요.

문수선원 초창기인 15년 전에 4년간 소임을 살고, 10년 만에 왔는데 그때 작대기 하나 풋았던 매화나무, 단풍나무가 지금은 고목이 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알아서 늄름하고 멋있게 크는데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심어놓은 나무들같이 다 커서 숲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굽어지면 내 주위에 큰 재목材木들이 퍼져가게 됩니다. 지나고 나서야 이런 말을 하지 옛날엔 나도 헷갈렸어요.

아직까지 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말 못해요. 그래도 지금 와서 보면 옛날보다는 내가 인간이 되었고, 사람 꿀도 잘 보고, 좋다 싫다 하는 분별도 좁아졌어요. 도가 다른 곳에 있어서 사다리 놓고 가야 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심이 道라는 말, 처처에 부처라는 것을 조금은 알겠어요.

이생에 정말 잘한 것은 오로지 한 걸만 뚫은 것입니다. 내가 몇십년을 선방 다니다가 돌아와 보니 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기 주위 인연들이 도망갈까봐 중 못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큰 모습으로 모두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요. 선방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복혜福慧를 구족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선방인데 앉아 있으면서 소임 살지, 정진할 수 있지. 대중에서 소임을 안 살 순 없잖아요. 사실 저는 앉는 것만 고집을 해서 다른 소임은 많이 살아보진 않았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게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 가장 큰힘이기 때문이지요.

강원졸업 후 선방?

가려면 바로 선방에 가야 됩니다. 제 주변에 박사과정을 마친 스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학교 가서 쳐절하게 공부를 하는데 선방스님들은 저 앞에 가고 있으면 힘들게 뒤따라가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늘 마음공부에 목말라 해서 평생을 그리워하면서 중노릇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수행하는 법이 없었으면 지금 뭘 하고 있겠어요?

수행이라는 목표를 삼는 거는 불교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일단은 나를 한번 건져 주셨으니, 그 다음에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게 부처님 은혜를 갚는 거지요. ☩

대호 스님
문수선원 현 도감스님, 윤문사
제25회 졸업. 제방선원에서 수
차례 안거



후회 없는 선택의 자리

정현 / 사미나파



우리네 삶이란, 예측하지 못한 순간순간을 살아가기에 매일이 새롭고 의미있고 가치로운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출가. 이 길을 걷기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수행자의 삶을 선택한 이 순간이, 무수히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왔던 내 인생에 가장 성스럽고 가치있는 선택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운문사 강원입학은 나의 선택을 후회없이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여법한 수행자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라 생각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택한 나의 이 결정이 너무나도 다행스럽다고 스스로의 기쁨을 쓸어내리며 청풍료 이루자리 위에서 새벽눈을 뜨는 순간이 새삼 감격스러워진다.

짧지만 한달여 가까이를 이곳에서 보내면서 대중생활이 수행자에게는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느꼈고, 이렇게 많은 대중이 잡음 없이 흐트러짐 없이 물 흐르듯 각자의 자리에서 같지만 다른 자신만의 빛을 내며 살아감이 새내기인 나에게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4년간의 강원생활을 통해 내가 옳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흰 도화지에 다시 고운 색으로 물을 들이듯, 스펜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며 주어진 모든 것에 순응하고 감사하며 지내고 싶다. 각진 내 마음이 운문사에서 깎이고 깎여 동글동글해지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 청풍료 한켠에 앉아 방부소감을 쓰고 있음에 감사하며 4년후 이 방부소감을 다시금 읽어보며 미소짓고 싶다.

입방을 허락해 주신 어른스님들께 감사드리며, 잘 적응할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으로 이끌어 주시는 상반스님들, 그리고 이 순간을 함께 공유하며 아름다운 운문사 생활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줄 나의 도반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부처님! 이 생에 제가 운문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멋진 수행자가 되어 부처님 은혜 꼭 보답하겠습니다. ☩

오래 기다려온 봄날

승만 / 사미니파

노스님과 은사스님께서 늘 꿈꾸듯 얘기하시던 추억담 속의 운문사. 어릴 적 노란 온행으로 뒤덮인 도량에서 뛰노는 내 모습이 담긴 사진 속의 운문사, 행자와 새스님시절 강원스님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상상하고 동경해 마지않았던 운문사에 이제 정식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바쁜 생활에 몸이 고되지 않을까, 마음이 맞지 않는 도반들로 인해 힘들지는 않을까 조급 걱정도 했었는데 마침 입학해보니 꼭 집에 돌아온 것처럼 곳곳이 금세 익숙해졌고 도반스님들은 마치 함께하기 위해 기다렸다가 만난 이들처럼 순식간에 가까워지고 편해졌다. 예불시간, 공양시간, 입선시간 등 여러 대중스님, 도반스님들과 함께하는 일상은 때로는 너무 바빠서 혼이 쑥 빠질 때도 있지만 다 소중하고 행복하다. 상반스님들께 걱정을 듣거나 억울한 상황을 당하거나, 도반스님이 마음을 일으켜도 다 공부거리로 삼으며 스님으로서의 삶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상 어디에 이보다 좋은 곳이 있을까? 우리를 아껴주시는, 같은 길을 앞서 걸고 계신 어른스님, 상반스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신도분들의 과분한 공경을 받으며,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늘 부처님 곁에서 예경을 드리고, 같은 길을 갈 도반들과 부대끼며 아무 걱정 없이 수행에만 매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이 도량이 곧 극락인 것 같다. 입학할 때만 해도 ‘언제 방학해서 집에 돌아가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긴 방학 동안 운문사와 도반스님들이 그리워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25명의 치문반 일원이 장애없이 모두 4년과정을 원만히 회향할 수 있기를 나반존자님께 빌어본다. ☺



모두 “회향”이라는 향 한 자루 살라 법계 환히 밝히시길

능가 / 사교과

추운 겨울 청매화 홍매화가 봄의 보드라운 숨결에 묵언수행을 마치며 드디어 도량 안의 모든 생명들에게 청아하고 달콤한 향기로 써 봄 인사를 전네고 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그 향이 진하고 널리 번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반가움이 드는 건 매화향 그림자 가 드리운 금당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인가 봅니다.



얼마 전 사리암 소임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받은 몇 개의 선물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종무소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무슨 액자를 가져왔으니 케이블을 좀 내려달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도착했다는 인터폰을 받고 케이블로 가보니 나반존자님 액자가 한 상자에 100개씩 7상자가 와 있었습니다. 조금 후 한 거사님이 종무소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리암에서 기도를 시작한 후부터 공장이 조금씩 번창하기 시작해 지금은 꽤 안정적으로 발전했고 그 감사함을 나반존자님 액자로 보시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액자 보시와 함께 기도접수를 마치고 내려가시는 그 거사님의 뒷모습이 부처님의 품처럼 넉넉하고 따스하게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무주상보시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위 거사님의 회향이 또 다른 회향으로 이어져 꽃피운 이야기입니다. 보시 받은 액자를 종무소에서 하나씩 전달해 주고 있었는데, 보살님들 세 분이 조용한 이른 아침에 종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세 보살님들께 나반존자님 액자를 하나씩 나누어 드리니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사리암에 다닌 지 14년째지만, 오늘처럼 행복하고 감사한 아침이 없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액자를 선물할 수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해 드리니 보살님들이 꽃처럼 웃으시며 “제가 받은 이 감사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며 떡 불공을 올리셨습니다.

마지막 감동을 주신 신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 제가 지금 돈을 이만큼 가져왔는데 어떤 기도를 올리면 좋을까요?” 사리암 소임 중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신도님에게 어떤 발원을 위한 기

도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 이름으로 천 원씩 천 원씩 모은 돈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돈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싶은데.” 어떤 마음이신지 충분히 이해했기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 축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사리암 종무소에 있으면 하늘을 덮는 가지각색의 초파일 연등처럼 다양한 소원이 담긴 기도가 접수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분들의 일들이 제 마음에 선물처럼 전해진 것일까요?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나 아닌 다른 생명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과 공덕을 회향하는 마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회향이란 단어가 기도, 불사, 무언가의 ‘끝’을 의미하는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향이란 내가 지은 선근 공덕을 우주 법계에 돌리고 그 다른 존재가 지은 잘못이나 허물까지도 모두 내 뒷으로 돌려 이상적인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업보의 전환이며, 보살행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바달다 선지식이 있었으므로 6바라밀과 자비회사慈悲喜捨와 32상 80종호와 자마금색紫磨金色과 10력力과 4무소외無所畏와 4섭법과 18불공법不共法과 신통과 도력을 갖춰 정각正覺을 이루고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다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이니라.”

위의 내용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법화경을 읽다 만나게 된 부처님의 회향입니다. 부처님께선 제바달다에게 수차례 해침을 받으셨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공덕을 제바달다에게 회향하셨습니다.

내가 일으킨 작은 자비와 선행의 공덕까지도 무량한 법계와 일체 존재들에게 회향하니, 모든 세계 안의 생명들에게 따스한 부처님의 자비가 되돌려 비취지게 하는 것입니다. 회향은 법계를 환히 비추어 지금도 무량한 삼매 속에서 중생들을 돌보고 계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한다면 가슴 속에 품은 모든 큰 서원들과 발원들이 저절로 발현되고 성취될 것이며 생활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역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쳐쳐마다 불보살님께서 따스한 손길로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리암 소임을 사는 내내 교과수업을 못 듣기 때문에 약간 꺼려지는 마음도 들지만, 산문 밖 사람들과 주고받는 그 모든 일체의 소통이 충분한 공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리암으로 소임을 갈 때마다 마음에 벅찬 감동을 한 아름씩 안고 내려옵니다. 이번엔 자신의 행복을 모든 생명들과 나누는 ‘회향’의 진실한 뜻을 가슴에 녹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가르침을 수행의 두레박을 읽으시는 모든 존귀한 분들께 회향합니다. 부디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발원합니다.

願此善根遍法界 普利一切無遺缺

원하오니 이 선근 법계에 두루 퍼져, 모든 일체의 생명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데에 남김이나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

행복하지 않은 날들의 선물

혜중 / 사집과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일주일, 10년, 아니면 50년. 그건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지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만간에 죽을 수도, 아주 오랫동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영원히 살 것처럼, 손에 넣은 물건이나 힘을 계속 소유하는 일에 집착하기도 하고, 찰나의 기쁨과 슬픔이 천년만년 계속될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고뇌를 키우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천육백 년 전, 인도의 부처님께서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 세상 삼라만상은 계속 변화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생로병사를 비롯해 모든 것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어찌면 이리도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에 잘 부합하는지, 부처님의 깨달음은 시대를 초월해 매사의 본질적인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도리를 바르게 못 보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척도’입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자신의 척도로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해 버리죠. 그 결과 집착이 생겨납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도 않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것 또한 별로 없는 냉정한 곳이지만 열정만큼은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며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주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무언가를 해내려 했고, 더 많은 걸 얻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스스로를 집착의 굴레에 빠지도록 독촉한 셈이었습니다. 잘 해보겠다는 욕심은 가장 혐오하던 사람들의 모습조차도 짚게 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인간힘을 쓰고, 뭔가 보여주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나만 옳다고 외쳐 대고, 언제나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결과 속에 다른 행동을 하는 등 괴로웠지만 참아가며 애를 써 보았지만 기대만큼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부자연스러운 행동과 불편함 감정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지만,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며, 자기가 한 일의 공이 알려지고, 그래서 만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원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본능적 욕구라며, 다 이렇게 살 거라며,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사실 제대로 마주 볼 용기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행동을 되돌아보았을 때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인가, 다 내 잘못인가, 하는 가책이 느껴지니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변명을 만들어 내 실수를 덮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초라했고 비참할 정도로 행복하지 않은 날

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화도 나고 분해서 옥상에 올라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기는 한 거야!’ 라며 분노를 토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바람에 훌날리는 긴 머리카락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자유로이 훌날리는 머리카락을 손 안에 잡아두고 ‘세상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가르미를 바꾸는 일뿐이야!’ 라며 헛웃음만 터져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한참을 구차하게 불잡아도 보고, 미적거려도 보았지만, 논리적인 추론에서, 물질적인 부에서, 명성에서, 쾌락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참다운 인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머리카락 짹득 잘라 출가를 했습니다. 강원에 온 지 일 년이 지난 지금, 저는 행복할까요? 출가만 하면 혀된 욕심과 잡생각을 모두 비우고 조용히 앉아 한가롭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하루도 눈 코 뜰 사이 없이 부산하게 돌아가는데, 언제 한가하게 앉아 마음의 실체니 영원한 진리니 따지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덕분에 그토록 영원할 것만 같았던 불행했던 시간들도,

죽도록 미워했던 사람들도 무엇 때문에 미워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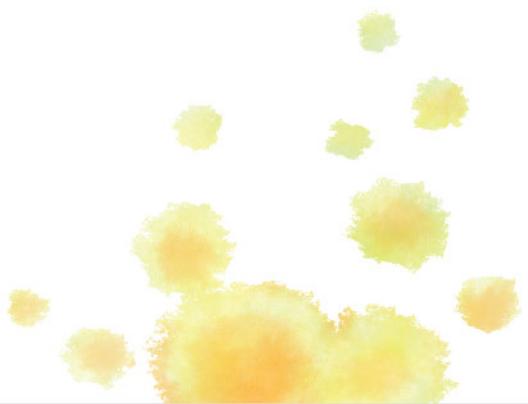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왜 기억조차 없는지… 누군가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이제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조삼모사’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아침에 세 개 주고 저녁에 네 개 주나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주나 결국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원숭이들은 어느 한쪽에 사활이 달린 것처럼 안달복달하며 자기들의 고집을 관철시키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저공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거기에 구애되지 않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출가 전에 원숭이와 같았다면, 이제 저공과 같은 여유를 보여야겠지만, 여전히 저는 스스로를 비울 줄도 낫출 줄도 모르고, 공로를 주장하거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며, 때론 자괴감에도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한 몸의 이익이나 쾌락을 추구하는데만 전력을 다하는 스님들을 볼 때면 불쾌감을 느끼며 미워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삶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의 목적이 흥청망청 내가 누릴 수 있는 물질적, 경제적 풍요로움이 아니라, 정견으로써 밝은 지혜를 구하고, 스스로를 낫추며,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는 것. 자리이타自利利他만이 제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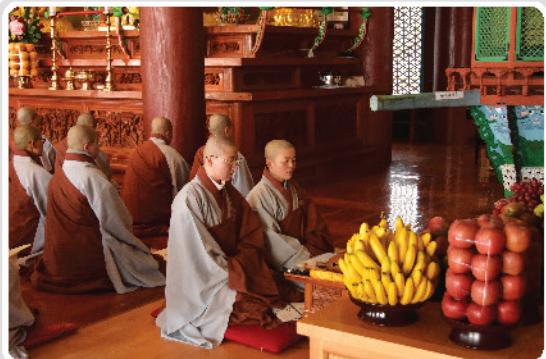
아무리 삼라만상이 변화하더라도 결코 상실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무언가를 체험했다는 사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걸 알아차린 순간 괴롭고 고통스러워 하지만,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경험을 통해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듯이, 우리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삶의 내면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겨서 행복하지 않은 날조차도 선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의 성장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처음처럼,
환한 웃음 가득히



꺾어진 고목에서 나를 만나리…

도안 / 사교파

동토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지나고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호거산 자락의 운문사에도, 수행하는 우리의 마음자리에도 ‘봄’이 한창인 듯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봄내음 머금은 바람이 드는 집, 청풍료에서 『꺾어진 고목에서 나를 만나리…』라는 주제로 차례법문을 하게 된 사교반 도안입니다.



출가 전, 저의 생을 뒤덮었던 주된 마음 작용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어릴 적부터, 인정과 사랑에 대한 갈망과 불안감은 자리 잡았습니다. 그에 따라 끊임없는 내적 고뇌도 시작되었습니다. 생의 초반부터 이러한 고뇌가 일어나다니, 역시 우리네 삶은 고 苦 땅이리입니다. 이러한 마음 작용이 일거수일투족에 다 드러나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멘토는 ‘장자의 쓸모없는 나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장자가 산 속을 걷다가 큰 나무를 보았는데 가지와 잎이 매우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목수는 그 나무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무 짹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 장자는 “이 나무는 재목으로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리는구나”라고 하였습니다. 곧게 잘 자란 나무는 쓰임새가 많아 여러 용도로 베어지지만, 용이투성이의 뒤틀리고 굽은 나무는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재목으로서 쓸모가 없어 살아남은 나무는 그늘이나 쉼터로 이용됩니다. 그러므로 단편적 견해로 쓸모없다고 자학하며 의기소침해할 필요도 없고, 쓸모 있기 위해 타인의 기준에 끼워 맞추려 애쓰며 전전긍긍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모든 존재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 짓거나 남이 짓어놓은 ‘나’라는 기준을 조금씩 놓아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말했듯이, 내가 존귀하기에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는 이치를 그때 어렵잖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란 도대체 무엇인가?’ ‘나란 누구이기에 끊임없이 자신을 규정짓고 남을 의식하는 것인가?’ ‘무엇이 나이기에

나는 이리도 이 몸뚱이에 집착하고, 찰나의 감정에 놀아나 일회일비하는 것일까? ‘나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망념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무념무상의 상태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을 구하고자 숙명처럼 수행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새 스님 때 우연히 최잔고목~~權~~殘枯木이란 문구가 적혀 있는 성철 스님의 법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러지고 썩어 쓸데없는 막대기가 있다. 최잔고목~~權~~殘枯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쓸데없는 막대기는 나무꾼도 돌아보지 않는다. 떨나무로도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불쏘시개도 되지 못하는 나무 막대기는 천지간에 어디 한 곳 쓰일 테가 없는 아주 못 쓰는 물건인데, 이러한 물건이 되지 않으면 마음 닦는 공부를 할 수 없다. 자기를 내세우면 결국 저 잘난 싸움 마당에서 춤추는 미친 사람이 되고 말아서 마음을 닦는 길은 영영 멀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 쓸 곳이 없는 대낙오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영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회생해서 버리고, 세상을 아주 둥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베림받은 사람, 어느 곳에서나 멀시당하는 사람, 살아가는 길이 마음을 닦는 길 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읽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쓸모없는 나무’ 보다 더 ‘쓸모없는 막대기’가 되어야 한다니… 이 말은 ‘진속이제’의 관점에서 ‘무아’에 대해 속속들이 궤뚫어 크고 환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나’가 무어라고, 무아를 통절히 깨닫기 원하면 서도 한편으로 ‘거짓 나’가 ‘거짓 나’인지 모르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고 ‘거짓 나’에 안주해 있었습니다. 차라리 ‘쓸모없는 막대기’가 되는 것보다 ‘쓸모없는 나무’나 ‘쓸모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 쉬운 듯 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쓸 곳이 없는 대낙오자가 되어 오직 영원을 위하여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가 될 수 있을까? 간절히 원하나 저의 익숙해진 존재 방식을 철저히 거스르는 길이기에 두려움이 앞서 온사스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공부하는 것이 ‘할 수 있다, 없다’, ‘하기 쉽다, 어렵다’의 개념 이전에 ‘가야만 하는 길’이고, ‘해야만 하는 공부’라는 것을 철저히 믿습니다.

지금은 강원에서의 모든 경험이 저를 성장시킵니다. 허리디스크로 고생했을 때,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 몸도 마음도 위축되었습니다. 원인은 이근에 머무는 청찬이나 꾸지람에 좌지우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일과 더불어 수행하며 다만 ‘일을 할 뿐’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이 평가하는 내가 ‘찰나’인 줄 착각하여 감정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무아와 무상’을 자각하고, 매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깨어 있는 시간이 1초, 2초, 3초… 1분, 2분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살의 마음

석인 / 사집파

반갑습니다. 도량에 매화꽃이 만발한 따뜻한 봄날 차례법문을 하게 된 사집반 석인입니다. 운문승가대학에서는 매 철마다 통강을 바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 치문 겨울철은 〈이산연선사 발원문〉과 〈산곡거사황태사 발원문〉을 통강으로 바쳤습니다. 발원문을 외우다 보니 덜컥 걸리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산곡거사황태사 발원문〉에서 일체중생이 자은 잘못 - 음욕하고, 음주하고, 식육하고 그것으로 인해 응당 지옥에 떨어져 받을 고통스런 과보를 내가 대신 받겠다는 발원에 그만 충격으로 모든 것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웬지 이런 발원문이 무의식에 새겨지게 되면 미래생에 언젠가는 꼭 실천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감이 독송조차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의 10대원 등 대부분의 발원에서는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정법을 보호하며, 대지혜를 체득하고, 광대무변한 세상에서 보살도를 실천하겠다는 그리하여 중생계를 성숙시키고, 모두들 무상정등정각을 염기를 바란다는 발원들이었지만 일체중생의 잘못을 대신해서 받겠다는 발원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전 어느 봄날 제가 살던 아파트 풍터에서 엄마와 초등학생 딸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배드민턴을 배우는 중이였고 자신의 미숙함에서 오는 짜증을 온통 엄마한테 돌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공을 잘 주지 못해서 내가 못 쳤잖아! 엄마가 시작한다는 말도 안하고 했잖아! 엄마가…, 엄마가….”

모든 잘못을 엄마 탓으로 돌리던 아이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문득 나 자신도 저렇게 엄마 탓을 하고, 주변 탓을 하는 말들을 속으로 끊임없이 주절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저지른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내기 까지 땀과 눈물이 뒤틀리며 된 수많은 참회의 절들을 올렸어야 했는데, 내가 아닌 타인의 잘못을 온전히 책임지려는 마음을 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의문을 갖고 〈산곡거사황태사 발원문〉을 읽고 또 읽다보니 처음에 들었던 거부감은 사라지고 이런 것이 바로 대승보살의 발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던 중 다음과 같은 내

용을 발견하고 일체중생이 받아야 할 고통의 과보를 대신 받겠다는 발원의 연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대승불교의 보살』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화엄경』십지품에서는 발심과 동시에 보살의 초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십지품을 계승한 ‘보살지’에서는 달리 초지에 들기까지 상당한 보살행을 거쳐야 하는데, 그 예비단계인 승혜행지에 머무는 보살은 지혜의 힘이 뛰어나서 보살행에 대해 지혜로써 자주 수습하지만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생계에 대한 두려움, 불명예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악취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점점 얇어지고 마침내 승혜행지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모두 끊어지고 초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지에 들어가기 직전 보살은 악취 중생들의 악업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고통을 대신 받겠다는 서원을 세웁니다. 바로 이런 서원의 힘에 의해 악취에 속하는 보살 자신의 번뇌가 사라집니다. 이로써 보살은 초지에 들어가고 영원히 악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願我以此盡未來際忍事誓願으로 根塵이 淸淨하며 具足十忍하야 不由他教하고 入一切智하며 隨順如來하사 於無盡衆生界中에 現作佛事하노니… 원천대 나는 이로써 미래제가 다하도록 인욕하는 일을 서원함으로 육근의 번뇌들이 청정해지며 십인(열 가지 참음)을 충분히 갖추어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일체지에 들어가며 역래를 수순하사 다함없는 중생계 중에 현재의 불사를 짓노니.”

오늘도 지대방에서 옆 스님과 자신의 아견과 아만, 아소와 아애를 여실히 드러내며 티격태격 말싸움을 합니다. 한 마디의 말도 지지를 않습니다. 대중 속에서 살다보니 자신의 모난 끌이 더욱 잘 드러납니다.

얼마 전 제가 방일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아신 은사스님께서 엄하게 꾸짖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하나 스님 만들겠다고 너의 부모님이, 수많은 시주자가 힘들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순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한 마음 밝혀야 그분들에게도 밝음이 전해질 텐데… 다시금 흐트러진 마음을 잡아봅니다.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번민에서 벗어나기를… 평안해지기를…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발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함월사 우룡 큰스님!

시우 / 대교파



어릴 적 엄마손을 잡고 외할아버지 댁에 찾아가는 것처럼 설렘과 궁금증을 안고 버스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흐드러지게 편 매화꽃 향기가 버스 안까지 배어들어온 듯 코로 깊이 숨을 들여마셔본다.

법명은 종자 한자이시고 건당 호가 우룡이라고 하셨다. 호가 법명이 된 셈이다. 5남 1녀 중 장남이신 스님께선 14살에 외삼촌인 스님을 따라 출가하셨다고 한다. 가사장삼을 수하고 절을 하고 앉자 대뜸 우리에게 물어오셨다. “가장 무서운 스승이 누군가?” 무서운… 스승…?

이 글을 읽는 자신은 가장 무서운 스승이 누구십니까?

삭발염의를 한 우린 가장 무서운 스승이 “대중”이라며 힘주어 말을 이으셨다. “몇 천배 절을 하고 경을 외우고 참선하는 게 중노릇 잘하는게 아니야. 위·아래·상호간에는 물론, 같은 도반들과도 경어를 쓸 줄 아는 기본 마음자세가 되어 있어야 대중을 스승처럼 부처님처럼 섬겨야 중노릇 잘하는거라 하시며 몇 번이고 당부에 말씀을 놓지 않으셨다. 맞다! 대중은 가장 무서운 스승이자 가장 자비로운 스승도 대중이 아닐까 싶다. 요즘 대중에서는 서로간에 스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속인들 친구 부르듯 한다며 말 속에 조심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신다.

마음가짐 자체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대중을 스승처럼, 부처님처럼 여기며 중노릇 잘하겠냐고 걱정 어린 쓴소리를 토해 내셨다. 그말을 듣고 나니 고개 들어 큰스님 얼굴 대하기가 부끄러웠다.

“회색옷을 왜 입는지 아나?”

이 물음 또한 꿀 먹은 병어리처럼 웅얼웅얼 입에서만 맴돌 뿐 선뜻 입밖으로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요즘엔 아주 보기 드문 오래된 옛날 화로에 찻물을 끓여 조그만한 찻잔에 따뜻한 선홍빛 차를 따라 주셨다.

새까만 주근깨가 쭉쭉 박혀 있는 먹음직스런 떨기와 진한 브라운색 쿠키가 함께 곁들여 나왔다. 쿠키를 먹어보시곤 맛있답니다며 무슨 과자냐고 웃으시며 물어 보시는 큰스님 얼굴이 천진스런 산골 아이 같았다.

조용한 침묵 속에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우리를 보시며 “옛날에는 나무를 태워 숯을 만들어 그 재로 먹물을 들였지. 나무를 태우지 않으면 숯을 얻을 수 없고 그 숯을 얻지 못하면 먹물을 들일 수 없어.”

“자신이 숯덩이처럼 속이 까맣게 타서 재가 되어야 해. 그

래야 인욕을 얻을 수 있지 인욕의 옷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만이 회색옷을 입을 자격이 있어.”

어릴 적 미술시간에 회색을 만들어 본 기억이 난다. 철로 된 파레트에 흰색 물감과 검정색 물감을 섞어 무채색인 회색을 만들어 쓰곤 했다. 검정색 물감을 많이 넣으면 어둡고 무거운 느낌의 회색이 나오고 흰색 물감을 많이 넣으면 너무 밝고 가벼워 보여 회색만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느낌이 살지 않는다. 이번 시간을 통해 무채색이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었다.

큰스님께선 파도가 일지 않는 잔잔한 바다 같은 평온함을 품고 계신다.

“회색은 죽은 색이야. 자신을 죽여야 해. 누가 시비를 걸어오든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듣든 죽은 시체처럼 반응이 없어야 해. 그 어떤 것이 나를 짓밟고 지나가도 죽은 것은 옳다 그르다 반응을 하지 않아. 다투질 않지. 이렇듯 철저하게 하심하라는 말이야. 이런 사람만이 회색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게지 머리 깎았다고 당연히 입는 옷이 아니야. 알고나 입고 있는 거야!”

호되게 꾸지람을 들은 아이처럼 순간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숙이고 착각 속에 참 뻔뻔하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어디론가 공간이동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황금과 백옥만이 귀한 줄을 아지 마소! 가사옷 얻어입기 무엇보다 어려워라 나~무~아미타불 이 한 구절 계송이 더욱 가슴 깊이 와 닿았다.

“수행은 도박이야! 인생을 건 도박이지. 부처와 약속을 했으면 부처를 이기고 자신과 약속했으면 자신을 이겨서 인생을 건 도박에서 이겨봐! 염불이든 주력이든 참선이든 근기에 맞는 것을 찾아 그 한 가지에 목숨을 걸고 이겨봐. 그래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

참! 멋지지 않은가. 시원스런 단비 같은 말씀이다.



지심귀명례…

지심귀명례…

과연 나는 무얼 얻고자 하는 걸까? 얻고자 하는 것이 없는 마음을 얻고 싶은 건 아닐까? 금강경을 좋아하는 나는 「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는 구절을 들어 어떻게 하면 웅당히 아무데에도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낼 수 있는지 여쭤 보았다.

“싫어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집착함이 없어야 해!”

알면서도 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어느 대중가요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다.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주기만 할 때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함 없는 그 마음이 자비요 부처의 마음이고, 그립고 아름다운 그 별이 우리의 불성이요. 해탈 열반이며 진여의 별이 아닐는지…✿

나무 아미타불~

봄의 향기가 운문 도량에 가득하다. 인고의 겨울을 감내했기에 봄은 온 것이다.
산자락도, 나무들도, 풀들도, 새들도, 꽃들도 아름다운 봄날의 향연을 실컷 맛
보고 있다.

추위를 견디고 살아남은 자연의 신비함이 경이롭고 또한 내가 살아 있음을 다
시 한번 생각해 하는 감사한 요즘이다.

그러나 살아 있음만 생각하지 나의 죽
음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아온 거 같다.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것은 죽음보다
더한 것이 없지만, 또한 세상의 그 누구도
죽음을 면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의 목숨은 숨 한번 들이쉬고 내
쉬는 사이에 있다. 그러나 자기의 한 생
각, 참마음은 본래 죽음이 없다는 것을 모
를지기 알아야 한다. 이른바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몸을 버리고 다시 다른 종류
의 몸을 받는 것일 뿐이다. 만약에 염불하
지 아니하면 선악의 협력에 따라 다시 선
도와 악도의 몸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 이
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신구의 3업을 함
부로 행해서는 안 되겠다.

나에게 신심을 중장할 만한 정토법문
책이 눈에 들어왔다.

‘임종 때 중요한 세 가지 일’이다.

이 책은 인광대사께서 법문하신 〈임종삼대요臨終三大要〉(임종 때 알아야 할
세 가지 일) 와 홍일 대사님께서 법문하신 〈인생의 최후〉를 합본한 책이다.

여기서 잠시 인광 대사와 홍일 대사의 전기를 대략만 소개하겠다.

인광 대사(印光大師, 1862~1940)는 중국불교 연종(蓮宗 : 정토종의 별칭)의 제
13조로서 섬서성 합양^{合陽} 사람이며, 속성은 조씨이고 이름은 성량^{聖量}, 자^字는 인
광印光이며 별호別號는 상참괴승常慚愧僧이시다.

젊은 시절에 유학을 공부하면서 정주학(程朱學: 성리학)을 좋아하여 배불排佛
하다가 눈이 실명하게 되므로 곧 맹성猛省하여 불전을 공부하게 되었고, 참회하고
기도하는 지극정성으로 말미암아 눈병을 치유하였다. 절강의 보타산 법우사에서
20년간 조석으로 장경藏經을 열람하며 염불만 하고, 문달聞達을 구하지 않으며 선
정에 드는 등 평생 동안 정토를 홍양弘揚하면서 명리에 담박하고 각고근검刻苦勤
검하며 항상 사람들에게 진실수행만을 가르치셨다.

그의 감화를 받은 이가 많아서 민국 아래로 정토종의 제1존숙尊宿으로 알려졌다.



임종 때 중요한 세 가지 일

월인 /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홍일 대사弘一大師(1880~1942)는 중국의 남산율종을 중흥시킨 명승이시다.

이 책은 임종을 맞이하는 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임종자를 삼학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평안히 극락에 왕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주 자세히 일러주시는 법문이다. 한마디로 불교신자의 올바른 장례절차라 할 만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록으로는 임종을 맞아 염불로 정토에 왕생한 여러분들의 정토 영험기가 다수 실려있다.

또한 임종인을 위한 조념염불 법요와 극락왕생 발원문도 있다.

본래 생사가 없으나 생사의 고통을 받는 이에게는 그에 관한 처방이 필요하다.

사람으로 태어날 적에는 산부인과와 조산원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기는 임종할 때이다. 왜냐하면 극락왕생하여 윤회를 벗어나느냐? 사람이 되느냐? 아귀가 되느냐? 축생으로 가느냐? 수라가 되느냐? 악도에 떨어지느냐? 를 결정지을 기로에 있기 때문이다.

탄생할 때에 조산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임종 시에 가장 필요한 조념(助念 : 염불로 왕생을 돋는 일)의 도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책을 보면서 망자를 위한 조념염불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져 인왕 대사가 법문하신 임종 때 중요한 세 가지 일을 소개하겠다.

첫째는 임종하는 사람을 선교방편으로 아끌어 안심하게 하고 위로하여 바른 믿음을 내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여러 사람들이 몇 개 팀으로 나누어 염불하여 임종인의 염불심을 도와야 한다.

셋째는 절대로 임종인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움직이지 말고 또한 곡을 하지 말며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세 가지 법에 의지하여 그대로 행하면 결정코 숙세의 업을 소멸하고 정토인연을 중장시켜 부처님의 아끌어 주심을 받아 서방정토에 왕생하게 된다고 한다.

가까운 이가 임종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사항을 기억하고 일심으로 아미타불 염불을 해야겠다. 그리고 임종시에 다른 이들의 조념염불을 믿는다 하더라도 모든 일은 여법如法하게 해야 된다. 다만, 스스로 평소에 믿고 발원하고 부처님 명호를 지니는 등 진실 수행을 했다면 임종에 이르려도 구애됨 없이 자재自在하게 된다.

아미타불의 48원에 서방정토에 왕생함에는 마땅히 참다운 믿음과 간절한 왕생원이 기본이 된다 하였다. 우리도 극락왕생을 진심으로 믿고, 발원하고, 염불하여 진정으로 마음을 안주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는 평소에 죽음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을 사전에 확실히 갖추고 임종시 잘 대처하고 임종인이 임종시 바른 염불심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조념助念염불로 극락왕생을 도와야겠다.

왕생계往生偈를 끝으로 마치겠다.

願往生 願往生 往生極樂見彌陀 獲夢摩頂受記別

원왕생 원왕생 극락에 왕생하여 아미타불 친견하고 마정수기 받기 원하오며

願往生 願往生 願在彌陀會衆座 手執香華常供養

원왕생 원왕생 아미타불회상에 참례하여 항상 향과 꽃을 공양 올리기 원하오며

願往生 願往生 往生華藏蓮華界 自他一時成佛道

원왕생 원왕생 극락의 연화장세계에 왕생하여 자타가 일시에 성불하여지이다. ◎



우리들의 행복 찾기, 대만 순례기

동호 / 사교과

저희 사교반은 지난 겨울방학 교무스님 및 어른스님을 모시고 4박 5일의 대만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대만에는 불광산사, 법고산사, 중대선사, 자재공덕회로 대표되는 신홍 4대산문이 있습니다. 4박 5일의 기간 동안 저희 사교반은 출렁하게 불교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실천하는 이들 산문을 순례하였습니다. 순례기간 내내 저희 반은 화창했던 날씨만큼이나 즐거웠고, 엄청난 산문들의 규모와 장엄함에 환성을 터트렸고, 좀더 알고 싶은 아쉬움에 젖었으며 이런 기회를 갖게 해준 운문사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4대 산문은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광산사는 열정적인 신앙에 뿌리를 둈 문화와 예술활동으로, 중대선사는 수행, 법고산사는 불교학연구, 자재공덕회는 세계적인 재단 구호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기간에 세계적 규모의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108m(36층 높이)의 불광대불과 팔정도 탑이 우뚝 솟은 보리광장이 있는, 하루 평균 2만 5천 명이 순례한다는 불광산사의 불타기념관, 법고선사의 세련되고 아름다운 건물, 중대선사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불상과 약사전 등 과연 이 나라가 우리보다 작은 나라인가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또한 이들 산문들은 법고산사의 경우 신도 1백만 명, 봉사자 30만 명, 불광산사의 경우 173개국에 3,500여 개 지부를 두는 등 보이는 외형뿐만 아니라 내적인 수준까지도 세계로 뻗어 있었습니다.

감탄을 넘어서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을까? 의구심이 생겨났습니다. 중대선사를 일으킨 유각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本立道生’이라는 논어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남루한 초가집에서 손수 지은 거친 음식을 먹으며 사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곳을 지나는 산업도로가 생깁니다. 도로가 생기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몇몇이 스님의 범상치 않음을 알게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스님께서는 영천사라는 절을 지으시고, 1992년 처음으로 49일간 7번의 선찰을 개최합니다. 스님의 근기에 맞춘 가르침과 선법은 지극히 활발하고 원용하여 불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때로는 방과 할로 또는 묵언과 말막음으로 법문과 함께 참선을 지도하여 학인들의 공부가 각자의 심성에 계합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선찰이 이어지고 영천사의 수용한계를 넘어서자 유각 스님은 중대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중대선사를 건립하게 됩니다.

30대 초반 하루 10여 만번 아미타불을 염송하고 머리에 삫갓을 쓴 듯, 시선을 1m 범위를 넘지 않고 육근을 거두어 전심으로 공부한 유각 스님이었습니다. 공부가 익어가자 더욱 분발하기 위하여 폐관정진을 거듭하던 스님은 기연이 성숙되자 드디어 세상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의 한적한 초가집은 대만 내 말사 62곳, 미국 내 말사 3곳, 불교 케이블TV 등 중대선사라는 결출한 집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부 30명이 매일 5전씩을 보시하면서 빈민구제를 시작했던 자제공덕회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일종식과 하루 2시





간만을 자며 하루 종일 경전독송과 참선에 매달렸던 중엄 스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수행자로 살고자 했던 스님은 어느 날 만산의 한 원주민 여인이 난산으로 병원에 찾아갔다가 보증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삶의 경로를 바꿉니다. 한정처의 수행자가 아니라 대중 속에서 함께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1972년 처음 빈민 의료검진시설을 세웠고 지금은 언제라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14만 명에 이르는 어떤 단체보다도 먼저 재난현장에 나타나는 자체공덕회를 일구어냈습니다.

자체공덕회 건물의 입구에 나오는 ‘등불 하나가 천년의 어둠을 다 걷어버리고, 한 지혜가 만년의 어리석음을 능히 타파한다.’(一燈能除千年暗一智能滅萬年愚)는 말처럼 바른 수행자가 천년의 어둠을 거두고 만년의 어리석음을 능히 타파합니다. 근본이 서면 도는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이란 무엇일까요? 법고산사 대웅전의 현판의 문구처럼 본래 면목을 깨치려는 수행자의 자각입니다. 또 수행에 대해 생각해봅니다.『관무량수경』에는 세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극락정토에 가고자 하는 수행자는 삼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세복世福인데 세간의 윤리도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둘째는 계복戒福인데 계율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는 행복行福인데 보살도를 잘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복幸福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행행하는 데서 복福이 찾아옵니다. 바로 계행으로 모범이 되고, 세복을 닦고 세계로 행하는 것이 대만불교의 모습입니다.

어느덧 순례는 끝나고 지금은 또 금당으로 왔습니다. 많은 것을 잊었지만 감동했던 기억만은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 마지를 올리면서 전국의 사찰들이 같은 시간에 부처님께 공양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환희심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예불을 하게 되면 전국의 절에서 함께 마지를 올리는 모습을 상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안마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시에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가족을 보았습니다. 미안마의 모든 사찰에서 사시에 공양 올리는 모습이 제 상상 속에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보리광장에 모여서 예불하는 모습이 더해졌습니다. 이제는 마지 올리며 세계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상상이지 않습니까?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기회를 주신 회주스님, 학장스님, 주지스님 및 어른 스님들께, 노심초사 둘봐주신 담임교수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我若歡顏心煩惱
世間煩惱變歡顏



하하하!

내가 환히 웃으면 번뇌가 줄어들고
세간 번뇌 변해서 웃는 얼굴 되네

민재 / 사교파

옛날에 한산이 습득에게 물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비웃고 깔보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속이니 어떻게 대처對處 해야겠는가?”

습득이 말했다. “참고 양보하고 내비려두고 회피하고 견디어 내고
그를 공경하고 그와 따지지 않으면, 몇 해 후에는 그들이 그대를 보게 되리라.”



바로 그대가 선지식

하늘과 땅 산과 바다 허공에 맴도는 바람의 미세한 변화에 우리의 감각을 기울이면 자연의 무한한 법문을 들을 수 있다. 답답한 마음 푸른 하늘과 끝없는 허공 속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관찰할 때 알게 되는 집착들,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제에 당면할 때 태어나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익숙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리면 순리대로 따를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선지식이 가까이에 있다.

앙상한 가지 끝에 맺힌 꽃봉오리에서 매화가 됐다. 나무껍질 한 겹을 벗기면 그 안에 숨어 있더라도 할 것 같다. 언 땅이 천천히 녹아 가지각색의 색과 소리와 향기를 피워내는 자연의 변화는 해마다 새롭고 신비롭다. 그 속에 숨어 있는 선지식의 설법을 못다 이해하는 것만큼 아쉬운 것은 없을 것이다.

선지식이란 불도수행을 도와주고 지도해 주는 사람으로 선우善友라고 한다. 올바른 도리와 이치를 가르쳐 주는 이. 본래 불교에서 비롯된 말이지만 출가한 스님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도 널리 쓰인다. 원어인 카리아나미트라라(kalyāṇa-mitra.)라는 말은 최초에는 불보살만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었으나, 선종의 전개와 함께 화두를 타파한 도인을 가리키게 되었고, 점차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이는 누구나 선지식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태백산 갈반지에서 문수보살을 기다리던 자장스님은 석남원을 창건하고 문수대성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한 늙은 거사가 남루한 옷을 입고 헉으로 만든 삼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담아 메고 와서 자장을 보시는 사람에게 자장을 보여고 웠다고 하니 거사를 업신여겼다. 자장에게 알렸으나 자장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아마도 미친 사람일 것이라고 거사를 꾸짖어 내쫓으려 하였다고 한다. 거사가 말하기를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 남을 업신여기려는 마음이 있는 자가 어찌 나를 보겠는가?” 하며 삼태기를 거꾸로 터니 강아지가 사자보좌로 변했고 거기에 올라 앉아 빛을 발하고는 가버렸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자장은 그제

서야 문수보살임을 알고 서둘러 찾아 나섰지만 따라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한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일화이다. 자장 스님은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고자 수행하셨던 율사스님으로 문수보살에게서 이미 인가를 받았던 분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의 선지식을 만날지 모를 일이다. 문수보살님이라고 하니 더욱 생각이 간절해지기도 하는데 자장 스님이 문수보살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아상을 버리지 못한 때문이었다.

얼마 전 사리암으로 참배를 가는 치문반스님들과 동행하였다. 밀짚모자와 걸망을 둘러멘 뒷모습을 보면 지나온 치문시절이 문득 떠올랐다. 봄처럼 밝고 맑은 후배스님들의 모습을 통해 가슴 설레는 풋풋함을 느끼며 관계 속 서로를 성장시키고 나를 키워주는 선우善友임을 알았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 계곡길을 따라 걷던 중 특이한 새소리가 발길을 잡았다. 그 소리를 따라 바스락 거리는 마른 풀 사이로 들어가서 주변을 살피었는데 작은 물웅덩이 속에 개구리 알이 있었다. 그래 개구리들이 겨울잠에서 깨고 나온 소리였다. 하루하루 감사한 이 자연 속의 삶이 어찌 나 스스로 만든 하루이겠는가! 봄이 오는 소리를 가까이서 보았던 고마운 선지식과의 만남이었다.

하늘과 땅 산과 바다 허공에 땜도는 바람의 미세한 변화에 우리의 감각을 기울이면 자연의 무한한 법문을 들을 수 있다. 답답한 마음 푸른 하늘과 끝없는 허공 속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관찰할 때 알게 되는 짐작들,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제에 당면할 때 태어나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익숙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리면 순리대로 따를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선지식이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봄을 찾아 자연에서 치유받기 위해 도심을 떠나 몰려오는 것이다.

우리는 순간의 어리석음으로 눈앞에서 선지식을 보지 못하는 일이 많다. 선지식을 만나려고 한다면 선지식과 같은 모습의 자신이 되어야 한다. 나와 관계한 인연들에게 문수보살처럼 대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내가 바로 문수보살이 되어갈 것이다. 한 가지 장점을 소중하게 배울 수 있는 마음이 다수의 대중 속에 함께 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순조롭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될 것만 같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도 선지식이 되는 것도 모두가 다 한 마음임을 말해 주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착한 벗은 수행에 있어 전부를 얻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다만 착한 벗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도 주셨다. 내가 있다는 한마음을 내려놓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이가 선지식임을 알게 된다면 가슴 앞에 양 손을 마주하며 인사해 보자.

바로 그대가 선지식입니다!

운문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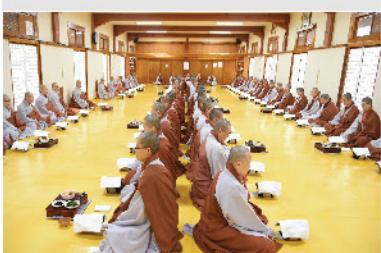
▲ 신중기도 입재



▲ 제15회 법계장학금 수여식



▲ 소나무 막걸리 주기



▲ 법공양



▲ 탁발 성금 기탁

- 3월 4일 봄철 개학공사 및 편집국장 동우 스님(40회 졸업), 대학원 5명, 숭가대학 25명 방부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신중기도 입재를 하였습니다.
- 3월 6일 3일간의 신중기도 회향 후 화재예방 소금물기를 하였습니다.
- 3월 12일 제15회 법계장학금 수여식이 종무소에서 봉행되었습니다.
- 3월 13일 치문반스님들이 사리암과 문수선원을 참배하였습니다.
- 3월 14일 화엄반스님들의 자비탁발이 대구, 동곡, 언양, 경주, 부산에서 있었고, 소중한 보사금은 마하파자파티 불교대학, 군종교구 포교지원비, 평택 남부노인복지관, 신월리 노인정, 불우이웃돕기동에 나누어 회향하였습니다.
- 3월 17일 봄철 첫 자자自恣에 사교반스님의 대만불교연수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 3월 20일 신입생 환영회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27일 직지사에서 봉행된 제37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에 일진 학장스님께서 니 존중아사리, 교수사, 갈마위원으로 참석하셨으며, 운문사 제53회 졸업생 26명의 스님들이 비구니계를 수지하였습니다.
- 3월 29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제14대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 추대법회에 화엄·사교반 40여 명의 스님이 다녀왔습니다.
- 3월 30일 봄철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30~31일 삼월 삼진날 연례행사인 처진소나무 막걸리주기가 있었습니다. 어른스님 대학원스님 화엄반스님이 참여하였습니다.
- 3월 31일 학인스님들의 관물장 검사가 있었습니다.
- 4월 1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큰법당에서 열린 제10차 비구니 경기 총회에 학장스님을 비롯한 강사스님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 4월 2일 주지스님을 비롯한 화엄반스님이 제11회 청도유동제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 4월 2일 만세루에서 진행된 대자원 법회가 있었습니다.
- 4월 4~7일 사리암 카페 봉사자들의 정기 법회가 비로전에서 있었습니다. 학장스님께서 법문해 주셨습니다.
- 4월 10일 제25회 식차마나니 수계산림에 사교반 25명이 수계하였고, 학장스님은 갈마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4월 15일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 4월 16일 전국 비구니 강사스님들의 모임인 교우회가 봉녕사에서 있었습니다. 학장스님을 비롯한 강사스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
- 4월 20일 故 원해당 흥륜 학장스님 입적 2주기 추모법회가 대웅보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 4월 23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방장 설정 큰스님의 초청법문이 있었습니다.
- 4월 24일 自恣 및 방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습니다.
36일간의 봄방학이 시작됩니다.

도와주신 분

- 신현섭 • 삼신사 • 정문아 • 이기태 • 광주 정안사
- 이정숙 • 정해옥 • 주건우 • 윤양근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인과교철

자타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히말라야 산에는 모든 동물들의 왕인 황금상아를 가진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금상아 코끼리를 잡으면 상금을 준다는 포고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수행자로 위장한 한 사냥꾼이 코끼리를 잡으려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예를 다하고 지나는 코끼리에게 사냥꾼이 독화살을 쏴았습니다. 코끼리가 그 자리에 쓰러지자 산속의 동물들이 사냥꾼을 향해 무섭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코끼리는 사냥꾼을 코로 감아 다리 사이에 그를 숨겨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안전한 곳까지 걸어가 사냥꾼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지만 당신이 살생의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오.” 코끼리 왕은 커다란 나무를 향해 달려가서 황금 상아를 세차게 부딪쳐서 이빨을 뽑아 사냥꾼에게 주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코끼리는 죄책감에 떨고 있는 사냥꾼을 향해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큰 악업을 지었지만, 수행자의 옷을 입었던 공덕으로 다음 생에 수행자로 태어날 것이오. 이와 같은 인연 공덕으로 내가 다음 생애에 부처가 된다면 맨 먼저 그대의 삼독三毒을 빼줄 것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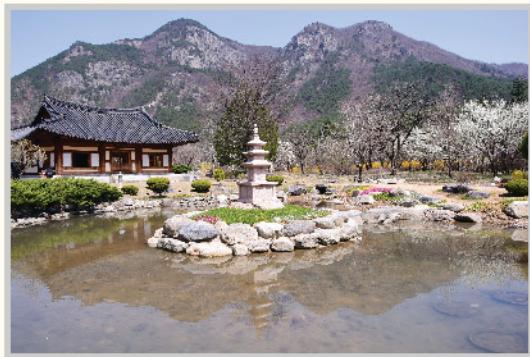
수없는 생에 선업을 쌓은 부처님의 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사무쳐 있다는 인과교철因果交徹의 뜻을 새겨봅니다.



티베트, 11세기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나려 하는 것이나,
살아 있는 모든 것들아, 부디 행복해져라.

- 슛타니파타 -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 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봄호·통권 제140호·2017년 4월 21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법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지욱 / 편집위원·혜공, 통호, 지안, 무여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지욱(봄날의 포행) / 섭화·혜공 / 편집
디자인·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